

제28차 평의원 회의 (6월 21~23일) 뉴욕에서 개막

조태열 UN 대사 기조연설, 모교 오세정 총장, 신수정 총동창회 회장, 미주평의원과 가족 등 150여 명 참여



【기사: 김원영 편집인】

제28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에서 150여 명의 당연직, 선출직 평의원과 그 가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 연설자로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UN 대사가 참석하며, 강연자로 이흥규 (의대 68년 졸업), 장태한 교수가 참석한다. 또한 모교 오세정 (물리 71) 총장, 신수정 (음대 59) 총동창회 회장이 참석하며, 국제협력본부 장 구민교 교수, 발전기금상임이사 채준 교수, 총장실 최진민 선임주무관 국제협력본부 조현진 주무관과 강인구 총동창회 명예 부회장(수의대 59), 김경태 재단법인 관악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본 행사의 공식 일정은 2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접수, 이흥규, 장태한 교수 강연, 환영만찬 그리고 조태열 UN 대사 기조연설 순서가 있다. 22일은 9시부터 평의원 회의를 진행한다. 오후 회의에서는 미주동창회 차차기(16대) 회장 선거가 있다. 선거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뉴욕 맨해튼 카네기 홀로 이동, 평의원회의 축하 음악회에 참석한다. 23일 일요일 아침 8시에는 지부 회장단 모임이 있다. 이후 뉴욕 근교 West point & Hudson River 관광을 끝으로 이 행사를 마무리 한다.

21일 주요 행사는 이흥규 (의대 68년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흥규 교수는 이날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내분비 내과의 권위자이며, 우리 한민족의 기원

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어서 장태한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장교수는 미주 한인 사회의 발자취를 연구하며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이번 강연 주제는 '파차파 캠프-미주 최초의 한인타운'이다. 조태열 UN 대사는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장래'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한반도 문제가 첨예한 요즘 모교 UN 대사의 연설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아침 9시부터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28차 평의원 회의가 시작한다. 지난 2년간 제14대 회장단이 해온 사업, 재무, 모교발전기금, 후원회, 종신이사비, 본국 동창회 미주동창회 분담금, 감사, 기타 토의 등을 발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차차기 (16대) 미주동창회 회장 선

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차차기 회장 선거 후, 윤상래 14대 회장은 신응남 차기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인계하는 절차로 회장직을 인수인계 한다.

이날 저녁엔 뉴욕 맨해튼 카네기 홀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강미자, 테너 문현호, 바리톤 한경진, 테너 장주훈, 테너 노영환 동문 그리고 장수인 동문이 단장인 필하모니아 보스톤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평의원이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배려로 22일에는 뉴욕의 명소인 MOMA(The Museum of Modern Art) 방문 기회가 있으며, 마지막 날엔 뉴욕근교 West point & Hudson River를 관광하는 기회도 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음악회, 6월 22일 오후 8:30

제28차 미주 평의원회, 모교 총장 축하, 총동창회 회장 축하



오세정 (울리 71)
모교 총장

축사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윤상래 회장님과 신용남 차기 회장님, 손대홍 뉴욕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 신수정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 특히 오늘 평생참여부문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박윤수, 이용락, 방은호, 이준형 네 분의 원로 동문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28차 정기 평의원 회의'가 개최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동문들께서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장벽 등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성실과 헌신을 실천하고 계신 동문님들의 노력과 성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울대 역시 그동안 시대변화의 파고를 극복하며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이에 한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온 주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인류 발전에 기여해온 소중한 지식을 제공하며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 여러분의 모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미주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서울대가 쉽 없이 전진하는 동력원으로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문님들의 값진 성취와 모교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며 서울대는 이전보다 더 넓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더 나아가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머리만이 아닌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상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시민형 인재를 길러내어 우리사회와 세계의 희망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새로운 분야를 여는 근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환경,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일자리 문제 등 한국 사회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해답을 제시하는 세계 속의 선도대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서울대는 모국과 모교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미주 동문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구성원 모두는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가치를 발전시켜 서울대가 찬란한 미래를 향해 비상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서울대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성장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우프록 오를 행사가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모교 발전의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음대 59)
총동창회 회장

축사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윤상래 회장님과 신용남 차기 회장님, 임원 여러분,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평의원 여러분.

올해로 28회를 맞은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큰 기쁨입니다.

미주동창회는 서울대 재외동창회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곳입니다. 넓은 미주 전역의 동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미주동창회의 모습은 다른 재외동창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울대총동창회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4대 윤상래 회장님께서 2년 전 동창회장에 취임하신 이래 미주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백년대계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창회 재정이 튼튼하게끔 서울대 미주동창회 기금을 설립하였고, 미주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연구위원회도 세우셨습니다. 브레인 네트워크 꾸준히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많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라서가 가능한 일이지가 자부심이 큼니다. 올해부터 총책을 맡으실 신용남 차기 회장님께서도 큰 활약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모교 수의대가 미국수의사회 인증을 받는 데도 미주 수의대 동문들께서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조국과 모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미주 동문님들 덕분에 모교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 간 우애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주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도 동창회와 재미한인사회에 공헌하신 동문 열다섯 분께 표창패를 준비했습니다.

신약 개발로 서울대의 위상을 드높이신 고충성 동문님과, 브레인네트워크위원회를 주도해오신 하용출 동문님께 학술상을, 남가주지부 상임교문을 역임하신 방석훈 동문님과, 화학 분야 연구원으로 인

류에 기여하신 이기풍 동문님께 영광상을 드립니다.

또 뉴욕지부 이사장으로 물심양면 동창회를 지원하신 한태진 동문님께 봉사상을, 하틀랜드·조지아·뉴잉글랜드·시카고·뉴욕·남가주지부에서 각각 회장으로 헌신하신 오명순·하지영·윤은상·홍혜례·이대영·강신용 동문님께 공로상을 드립니다. 동창회보 참여와 동창회 활동 지원을 해주신 박평일 동문님, 뉴욕지부 골든클럽 회장으로 공헌해주신 손경택 동문님, 미주동창회 당연직 평의원을 역임하신 고일석 선생님 이 참여상을, 동창회보 발간과 운영을 지원해주신 차민영 동문님이 감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업적은 미주총동창회만이 아니라 40만 서울대인 전체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실은 후배들의 결실로 이어져 모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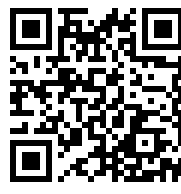
올해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총동창회는 임광수, 서정화 회장님 등 전임 회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40만 동문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큰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흥겨운데 이 등 동문 친목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 수가 대폭 늘었고, 행사의 품격도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흥겨운데이에 일부러 먼 길을 와주신 미주 동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은 지금은 총동창회가 새로운 기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전통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모교 사랑과 동문 화합의 기치 아래 더욱 단단하게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교와 함께하고, 동문에게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미주 동문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과, 미주 동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임인호 (농대 57)

기술혁명 - 미래학자들의 예측 - 현실화

[상]

4차 산업혁명시대를 바라보는 미래 학자들의 예측은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다. 기술 혁명에 의해 과연 인류 사회의 행복은 증대되는 것일까?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서 현대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은 소멸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문명사관은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함께 기술혁명이 몰고 오는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성찰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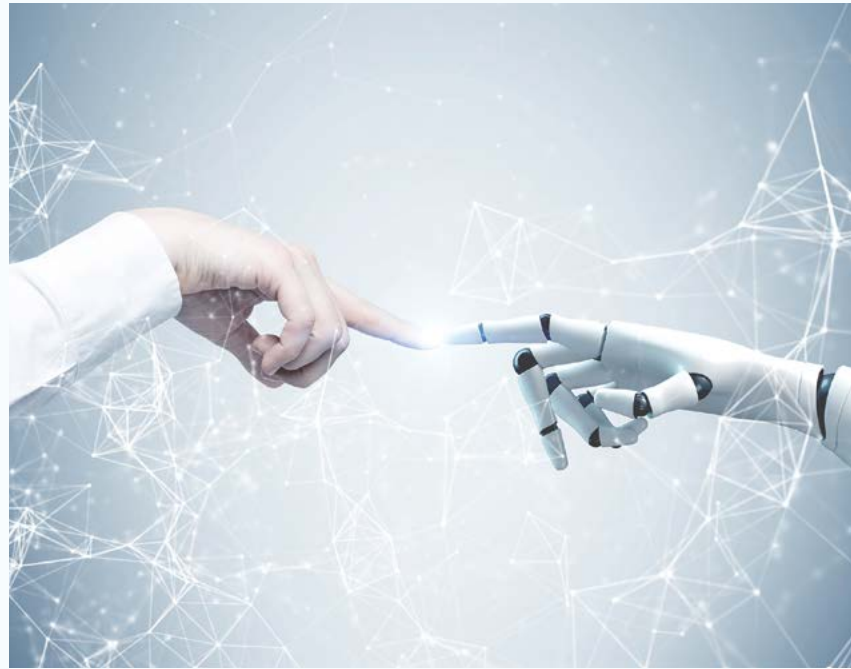
현재 대다수 학생들의 목표가 대기업 취직이나 전문직 종사임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10여년 사이에 일어날 변화는 커다란 충격일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을, '시스코(Cisco)의 창업자는 '대기업의 종말'을, 그리고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학교의 종말'을 각각 예측한 바있다. 우선 전문직종들을 인공지능이 서서히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대기업 자체도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스타트업(start-up)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의 대학들도 온라인 공개 강좌 무크(MOOC)의 도전으로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어 앞으로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지 못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래를 경영하라'의 저자 톰 피터스(Tom Peters)의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화이트칼라 직종 중 80%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화이트칼라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학졸업자들 아닌가? 옥스포드 대학의 칼 프레이(Carl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교수의 보고서(2013)는 20년 안에 수많은 전문직종이 컴퓨터화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질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임금 전문직 직종에는 금융업, 대기업, 의사, 교사 및 교수, 변호사 및 판사, 회계사, 세무사, 신문기자, 엔지니어, 비행기 조종사, 경제학자 등 현재 한국의 최고 인기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에 의해 수많은 일자리가 각분야에서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현실화 되고 있다. 반복적인 위험한 육체노동 직종(예, 자동차 조립 공장, 등)은 로봇이 인력을 대체한지 이미 오래다. 금년 4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월마트(유통회사)가 직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미국에 있는 4,600개 월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자동바닥 청소기' 1,500대, '재고관리형 로봇 선반 스캐너' 300대, 상품을 추력에서 자동으로 내리고 분류하는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 1,200대, 그리고 온라인

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고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픽업타워' 자동화기기 900대를 포함하는 총 3,900대의 로봇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계 사용으로 인력을 육체적인 업무에서 해방시켜 상품판매 서비스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 한대가 1명의 일자리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명 또는 수백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단 글로벌 투자 1위인 골드만삭스가 주식 트레이더 600명을 2017년 단 2명으로 줄인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금융자료를 모



으고 분석하는 역할을 인간 애널리스트로부터 인공지능 (Kensho로 명칭)으로 대체했다는 증거다. AI의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대란 쉽게 말해 600명이 할 일을 '2명+A'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운전기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문직종의 경우는 어떤가? 법정에서는 AI 판사로부터 재판받는 시대가 다가온다. 북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가 주문한 AI 판사는 법률 문서와 관련 정보를 분석해 소액사건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소액사건을 AI판사에 맡겨 인간 판사의 업무량을 덜어주면서 더 큰 규모나 중요한 재판에 집중자는 취지라고 한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인간 판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변호사 업무의 50%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예측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폐질환을 비롯한 진단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의사를 추월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의사의 80%를 대체할 것이라고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 전

마이크로시스템즈 (Micro systems) 공동창업자는 예측했다.

금융업은 모바일 뱅킹의 확산으로 2020년대에 수많은 은행지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이미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6,000명을 줄였고, 국내의 은행 지점 수가 지난 해에만 800개가 사라졌다. 은행 인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이유는 소비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자의 경우, 2030년 경에는 뉴스의 90%를 컴퓨터(Journalism 로봇)가 쓸 것임으로 인간 기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네러티브 사이언스(Narrative Science)의 크리스티안 해먼드 (Christian Hammond)는 예측했다. 이처럼 미래학자들의 예측대로 각 분야에서 인간이 갖고 있던 직업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볼 때, 기성세대가 굳게 믿고 있던 '성공의 공식'인 '명문대학->전문직->대기업'이라는 링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은 이제 직감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 무크(MOOC 온라인 공개 강좌)의 출현으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퇴출 당하고 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 무크(MOOC)에서는 MIT,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등 전세계 190여 대학과 구글 엔지니어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미 전세계 명문대 수업을 온라인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듣고 수료증을 받는 무크(MOOC)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구글, 애플같은 기업은 사람을 채용할 때 대학간판 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고 한다. 페이스북과 통신업체 에이티엔티(AT&T) 등 미국 주요 기업이 무크 수료증을 받은 학생을 뽑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무크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명문대학의 졸업장보다 무크의 수료증을 더 인정해주는 미국의 Internet 회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예, 구글, 애플, Facebook, Netflix, 등). 기존지식만을 소화한 대학졸업장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테크 기업들은 이미 터득한 바 있다.

무크(온라인 공개 강좌)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혁신대학이 미국과 불란서에서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 미국의 '미네르바스쿨(2014년 설립)과 불란서의 '에콜 42(2013년 설립)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다. 미네르바스쿨에는 물리적 캠퍼스가 없다. 모든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직접 토론으로 진행된다. 학생 강의실도, 연구실도, 도서관도 없다. 대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 세계 도시속으로 흩어진다.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치면서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직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에콜 42(미래의 학교로 칭송)는 교수가 한 명도 없고, 교재도 없으며, 분기별 시험도 치르지 않는다. 학비도 전혀 받지 않는다. '에콜 42의 유일한 지도자는 '학교장'이다. 교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적 기술적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준다. 학생들은 개별 혹은 팀 프로젝트로서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이론수업은 없지만, 오직 과제 해결을 위해 평균 12-15시간씩 몰두하기도 한다. '실무형' 컴퓨터 천재 양성이 목표인 것이다. 설립 1년 만에 무려 11개 스타트업을 배출한 '에콜 42는 매년 1,000명가량의 SW인재를

키워주는 것이 목표다. '에콜 42(미래의 학교로 칭송)는 교수가 한 명도 없고, 교재도 없으며, 분기별 시험도 치르지 않는다. 학비도 전혀 받지 않는다. '에콜 42의 유일한 지도자는 '학교장'이다. 교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적 기술적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준다. 학생들은 개별 혹은 팀 프로젝트로서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이론수업은 없지만, 오직 과제 해결을 위해 평균 12-15시간씩 몰두하기도 한다. '실무형' 컴퓨터 천재 양성이 목표인 것이다. 설립 1년 만에 무려 11개 스타트업을 배출한 '에콜 42는 매년 1,000명가량의 SW인재를



윤기향 (법대 65)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지금 한국은 승차공유서비스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유경제는 차량공유, 숙박공유, 주방공유, 오피스공유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원이거나 서비스를 혼자 소유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또는 단체들)이 서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점이며 그러한 공유경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인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제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자원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자원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 매커니즘이 공유경제 탄생의 배경이다.

차량공유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이며 숙박공유서비스로 대표적인 업체가 에어비앤비(Airbnb)이다. 우버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했으며 에어비앤비 역시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 그리고 리프트는 이들 두 공유업체보다 늦게 2012년에 출발했다. 우버는 2019년 5월 주당 \$45달러로 기업을 공개했으며 2019년 5월 말 현재 우버의 시장가치는 무려 6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기존 굴목산업의 대표주자이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GM(1908년 설립)이나 포드자동차(1896년 설립)의 시장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공유경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승차공유서비스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가 2018년 2월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가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1월 시범 카풀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썬카 대표가 설립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타다도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그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금 한국에서는 승차공유업체와 택시업

계 간 갈등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최종구 금융위원장)와 IT 업체 간 논쟁으로 시작된 온라인 설전문은 최근에는 IT 업체 간 논쟁으로 변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택시기사들의 ○○○○이라는 극단적인 저항으로

상징되듯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업계의 희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 가치(양시앵 레짐)와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연민'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이 분이 출마하시려고 하시나?"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응했다. 그러자 네이버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인 김정호 베테라 대표가 "쏘카의 타다같은 승차공유서비스가 관련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 누리는 것은 무임승차와 비슷하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웃기는 쟁쟁"이라고 공격했다.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의 창업자(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가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택시기사들의 분신사살이라는 극단적인 저항으로 상징되듯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업계의 희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이 온라인 강의료 20%이상 못하게 하는 규제에 묶여 100% 온라인 과정은 못하고 있다.

기술혁명으로 인해 세계는 다각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빼앗길 대부분의 전문직종, 다가오는 대기업의 쇠퇴

점에서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 가치(양시앵 레짐)와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연민'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극적인 예는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이다. 러다이트운동은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을 말한다, 그 당시 네드 러드(Ned Ludd)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드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1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많

들면 목축업자)이 자원을 사용한다는 이론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각 개인이 방목할 수 있는 소의 수를 제한하거나 방목할 수 있는 날짜를 제한하거나 방목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립될 경우 공유지의 비극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코우스(Ronald Coase)는 법보다는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한 합의가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그의 이론은 소유권 확립이라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를 공유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승차공유업체가 공유지에 새로 진입해서 개인택시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승차공유업체의 입장은 아무런 시장 진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유지(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한편 택시업계의 입장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택시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들은 최소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정부는 IT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을 채택할 수도 있으며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3의 방안은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들과 택시업체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택시기사는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택시면허권을 승차공유업체에 팔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투자한 돈보다 적은 보상을 받고 택시면허증을 넘기고 승차공유업체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승차공유업체가 택시업체들로부터 사들인 택시면허권을 인정해주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코우스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연구 논문들이 세계 유수의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Finance, Macroeconomic Dynamics 등에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논문 피인용 횟수가 440 회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공유지의 비극'이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생태학자 하딘(Garrett J.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공유지에는 진입장벽과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공유지가 황폐화될 때까지 사람들(예를

대학의 종말(무크의 도전과 혁신대학의 출현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전통적인 대학), 등으로 기성세대가 굳게 믿고 있는 '성공의 공식'인 명문대학->전문직->대기업->승진이라는 '링크도 무너지고 있다. 학벌이 취업과 '성공의 열쇠'였던 시절은 저물고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경

쟁해야 하는 4차산업 시대의 '성공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에서 경쟁하면 백전백패! 인공지능이 적을하지 못하는 감성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것이 '성공의 첫단추가 될 것이다. 전 캐나다연방국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학자



장동만 (문리 55)

이민, 사라지는 성씨(姓氏)

우리는 모두 성(姓)과 이름(名)이 있다. '성'은 한 조상의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거래 붙이들이 공통으로 갖는 칭호이고, 이름은 나 만이 유일하게 갖는 독자적인 칭호다. 그런데 우리의 '성'과 이름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닌다. '성'에는 본관(本貫)이 있어 가문(家門)을 나타내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돼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계대(系代)까지 나타내는 복잡하고 특이한 구조의 '성'과 이름이다.

그런데 이 땅에 이민 온 우리는 '성'을 이미 잃었거나, 또는 점차 잃어가고 있다. 여자들은 여기 법에 따라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 쓴다. -서구 여성 인권론자들이 왜 이를 issue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그러해서 그들의 '성'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남자들은 본래 자기 '성'을 쓰지만 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있어 음(音)만을 alphabet로 옮겨(音譯), 본성(本姓)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일종의 '아바타 성씨'가 돼버렸다. 예컨대, '장(張)을 'Jang', 'Chang', 또는 'Jhang'으로 표기하는데, 이 단순한 소리표(音標)가 장(張)이 지닌 역사적인 유래와 전통적인 고유한 의미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기된 '성'이, 같은 'Family Name (Surname)'이라고 말한다면 영어권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는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더

욱 심각해진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니 그렇다 치고, 남자는 아버지 '성'을 따르겠지만 그 '성씨' 개념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으로 된 'Family Name'을 가진 그들, 한자로된 아버지/할아버지 '성'을 알아 보고 이해할 것인가?

한국에 있는 종친(宗親)들과 어떤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그들의 장례 때 그 명패(名牒)에는 '성'과 이름이 모두 영어로 표시될테니 그 조상이 '장(張)'이라는 것을 누가 알 것인가? 그렇게 되면, 비록 나의 DNA는 자자손손 계승되고 있겠지만 그들과 나와의 유대 관계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성'씨는 우리가 이 땅을 밟을 때 이미 사라졌고, 그 '성'을 잇는 가문 역시 나의 대(代)에서 끊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張'과 'Jang' 모두 나의 정체를 나타내지만, 그 둘 사이에는 그 뜻과 의미에 있어 하등 연관이 없는 완전 남남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어권 사람들은 이름이 먼저 오고 (first name), '성'이 나중에 온다 (last name). 우리는 반대로 '성'이 먼저 오고, 이름이 뒤에 따른다. 그 '사람'에 앞서 혈통(blood line) 과 가문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봉건 시대의 잔재를 일소(一掃)한다는 의미에서 '사라지는 성씨'도 마냥 서글퍼 할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한글·영어·불어·스페인어·

독어·일본어·중국어 등

7개 국어로 구축된

www.yisunsinworld.com

세계 교육사이트의

번역에 도움 주실 분

연락 바랍니다.

이내원

703-725-8910

naewonlee@yahoo.com

SNUAA - America 이순신 세계 교육 후원자 모집

간사 안선미 (Sunmi Ahn-농대 65, 전 워싱턴회장) T: 347-776-0304, Email: sunmi_ahn@yahoo.com

Name (Korean)	Name (English)	Email
Annual Fee	Phone	전공 / 특기
\$100		
Voluntary Extra	IRS 501(c)(3) Tax Exempt Receipt Add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 납부 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수표 수령인 명칭 - Yisunsin America Institute • 수표 보낼 곳 - c/o Sunmi Ahn - 7702 Newmarket Dr., Bethesda, MD 20817 		



이내원 (사대 59)

미주 이순신

교육 운동의 현황

4월 28일 충무공 탄생 474주년을 맞아 동문 여러분께 워싱턴 이순신 교육 운동의 경과와 현황을 아뢰니다.

15년 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충무공의 빛나는 전승예찬이 아니라 완성형 인간 이순신의 정신과 인성을 배우고 닮은 훌륭한 해외 차세대 한인용 육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과 인성을 만나 진솔하게 느껴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순신의 기록을 읽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주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결 독해 능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 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 상급만 타면 내가 좋아 하는 신형 ○○○○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 이순신 교육은 상급으로 내걸 자금이 소요됩니다.

2017년 초미 전국의 약 700개 한글, 한국학교를 총괄하시는 총회장께서 저희 이순신 미주 교육에 긴급 호소를 해 오셨습니다. 요지는 "지금까지 한인 정체성 교육을 위해 십여년간 한글 이외에 한국 문화 역사, 김구 글짓기, 충주 직직고 인쇄 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한인 자부심과 정체성이 살아나지 않으니 <이순신 글쓰기>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나 난점은 상급 1만달러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교육사안인어서 자원 동문 박용걸(약대 56) \$2,000, 이견형(수의대 54) \$1,000, 안선미(농대 65) \$2,000, 이내원(사대 58) \$5,000의 자원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최고상은 디트로이트의 세중학교가 <이순신 미주교육>이 제작한 거북선 모형까지 차치했습니다.

2018~2019에 걸쳐 미주 이순신 교육은 세계 한국학교의 요구에 따라 <이순신 세계 글쓰기>를 시행하여 최우수상은 태국 치앙마이 한국학교 10학년 고경연 학생에게 돌아 갔습니다.

현재는 전라좌수영이었던 여수시의 여해 이순신 재단으로부터 세계 한국학교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여수 이순신 여름캠프>에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발을 완료하고 대기중입니다.

한편 <이순신 세계 교육>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워싱턴 SNS 골든 멤버 변만식(사대 49), 백순(법대 58) 외 8명과 LA의 초대회장 박윤수(문리대 48), 문성길(의대 63), 시카고의 조봉완(법대 53), 필라델피아의 서중민(공대 64) 등 원로 동문님들이 이미 일년에 \$100 씩 기여하는 <SNUAA-America 이순신 세계 교육 후원단>을 지원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 쓰심입니다.

충무공의 드넓은 구국헌신의 정신을 숭모하시는 많은 동문님들도 함께 하시어 이순신 세계 교육에 생기를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계속의 한국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서울대 출신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는 고정적 평가로 모교에 영예를 더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충무공 탄생의 의미를 기리며
이내원 올림

703-725-8910 / naewonlee@yahoo.com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 '걷기모임'으로 보스턴 인근 미독립 유적지 탐방



하트웰 태번 앞에서 전체사진



(뒷모습 왼쪽부터), 윤은상 NE 회장, 윤상래 미주회장, 김정선 NE산우회 회장



(왼쪽부터) 이재신(공대 57) 제3대 회장, 윤용훈(공대 67), 이재신 회장 부인, 윤은상(상대 66) 회장, 이정수(공대 71), 정태영(문리 71) 제14대 회장.



화창한 봄날, NE동창회들의 당당한 행진, 콩코드를 누비다.

【기사: 미주동창회 홍보국장 이영인】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윤은상, 상대 66)의 산우회 (회장 김정선, 문리 66)는 지난 5월 18 일(토) '걷기모임'으로 보스턴 인근 미 독립 유적지 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에 5월의 푸른 하늘을 만끽하며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미니맨 역사 유적지 (Minute Man National Historical Park) 의 안내소(비지팅 센터)에서 매사추세츠 주정 부에서 제작한 "1775년 4월 19일 그날의 역사"를 돌아보는 다류 영상물을 관람하였다.

다큐 필름은 최신 기법과 제작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방법을 통해 보스턴 지역이 미 독립전쟁의 시발지인 것을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미 역사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행은 이어 김정선 산우회장의 리더로 15 마일 구간 오솔길을 따라 뉴잉글랜드 민병대와 대영제국 군대가 전투한 현장을 답사하며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피크닉 구간에서 동창회가 마련한 김밥으로 점심을 들며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의 담소를 나누었다.

점심 후 김정선 회장이 준비한 물풍선 던지기 놀이를 하면서 야외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은상 회장은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라며 6월 15일에 있을 동창회 정기 총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6월로 임기가 끝나는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 덕분에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김경일 동문(공대 58)이 "오늘 모임은 뒤에서

용 카메라로 동문들의 추억을 담아 주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산우회는 앞으로 걷기 프로그램을 자주 가지기로 했다. 6월에는 잊혀져 가는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평화통일 걷기" 행사를 가지기로 했다. 6월 25일 화요일 Borderland State Park의 호수 둘레 길을 돌아볼 예정이다. 7월에는 카사지 인디언 박물관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김정선 회장은 덧붙였다.

한귀희 (남가주총동창회 회장) 동문댄 '하우스콘서트' 열려

피아니스트 장성, 첼리스트 김원선, 플루티스트 송영지 님 연주



이곳 저곳에 편하게 앉아 연주를 감상했다.



피아니스트 장성 님의 연주

【기사: 김원영 편집인】 지난 5월 18일 LA 시미벨리의 한귀희 남가주총동창회 회장 댁에서 하우스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은 모교 음대에서 석학을 전공한 손영아 동문이 기획한 행사로, 40명 정

도의 청중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장성, 첼리스트 김원선, 플루티스트 송영지씨가 연주를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장성씨가 공연



연주자들과 청중들 기념 촬영

자 및 해설자로 나서, 피아노 솔로곡인 슈만의 '시인의 사랑', 그리그의 '사랑의 선율'을 연주했고 이어서 첼리스트 김원선이 오펜바하의 '재클린의 눈물(Jacqueline's Tears)',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을, 플루티스트 송영지가 포르의 '판타지아'를 연주했다. 뒤이어 장성이 그라나도스의 '8 Valses poeticos', 쇼팽의 '6 Etudes from Op 10',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mapsodie espagnole)'을 연주했다.

자신의 집을 콘서트장으로 개방한 한귀희 회장은 "대저택은 아니지만 하우스콘서트를

하기에 좋다는 얘기에 젊은 한인 음악도들 돕는다는 차원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 의자가 부족했지만 훌륭한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7월 1일 이후,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aa.org

“남가주총동창회 일은 우리 모두의 일”

각 단과대 회장, 자문위원 등 40여 명 초청, 지난 사업 설명하고 향후 행사 설명회 가져



【기사: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한귀희)는 지난 5월 16일 LA한인타운 J그랜드호텔에서 각 단과대 동문회장 및 자문위원들을 초청,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주요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각 단과대 회장단, 자문위원 총동창회 전현직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최될 노동절 연휴 가족캠핑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올해 행사는 장소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은 만큼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조기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선 참석자들은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젊은 세대 동창회 참여를 높이기 방안, 각 단과대별 선임이사 선임 문제, 웹사이트 활성화 대책, 한국 동창회와의 연대 노력 등 남가주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끝으로 8월 31일~9월 2일 노동절 연휴동안

제4회 "미대 동문작가 작품 전시 및 옥션" 성황리에 개최 남가주총동창회 동문들 기대와 관심에 감사



동창회 전현직 임원



구매한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한 노명호(공대 60) 동문 부부

【기사: 남가주총동창회 회장 한귀희】 지난 5월 6일 부터 11일까지 열린 "미대 동문작가 작품 전시 및 옥션" 이 여러 동문 작가들과 총동창회 멤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먼저 참가해 준 동문작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우려와 기대속에서 시작된 옥션 행사가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면서 점차 남

2019년 제4회 "미대동문작가 작품 전시 및 옥션"에 총 11명의 작가(한석란, 백혜란, 서동현, 장원경, 김경애, 신혜자, 성수환, 박다

“꼼꼼히 준비해서 신나게 돌아봅시다”

남가주 총동창회 6월 임원 모임, 가족의 밤, 캠핑 행사 준비 만전



송별인사를 하고 있는 이원영 (정치 81) 동문



【기사: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회장 한귀희) 6월 정기 임원회의가 6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한귀희 회장 갤러리에서 열렸다.

▲ 장소: John Muir Lodge, Grant Grove Village in Kings Canyon National Park 86728 Highway 180 Miramonte, CA 93641 / Tel) 559-335-5500

▲ 숙박 형태 및 참가비(4인 1실 기준 1명당): (1) Lodge Room (2 Standard Queen Beds) 숙박: \$ 150 (2) Camp Cabin (2 Double Beds, 전기 사용) 숙박: \$ 90 (3) Tent Cabin (2 Double Beds, 전기 없음) 숙박: \$ 70

▲ 참고사항 (1) 참가비는 2박 3일 숙박비 외에 2번의 BBQ 저녁식사 포함 금액임. (2) 선착순 접수하며 원활한 행사 진행과 숙박 인원의 최대화를 위해 참가비는 전액 선불임. (3)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가를 위해 숙박은 4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2~3명이 방값을 모두 내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함. (4) Lodge Room은 64학번 이상 원로 선배에게 우선 배정함. (5) 왕복 교통편은 대형버스 이용시 1인당 100불(관광 이용료 포함). 별도 관광 만 하실 분은 20불.

이러 임원들은 8월말 노동절 가족캠핑 행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고 동창회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공식 홍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행사는 킹스캐년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숙박 인원에 제한이 있어 동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동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행사 안내 이메일을 바로 발송했다.

아래 내용은 올해 가족캠핑 행사 개요 및 참고사항이다. 행사 프로그램 및 교통편 등 자세한 사항은 남가주총동창회에서 발송한 행사 안내 이메일을 참고하면 된다.

2019년 Labor Day Weekend 가족 캠핑 행사 개요

▲ 일시: 8월 31일 (토요일)~9월 2일(월요일)

에, 박영구, 김구자, 신정연)가 총 23점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13점의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과 구매한 서울대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동문 작가들의 좋은 작품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대 동문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로 동문작가들을 알리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옥션 작품 구매자 및 구매작품수 노명호(공대 61), 오선웅(의대 63), 위중민(공대 64), 김병연(공대 68), 강신용(사대 73), 차민영(의대 76), 민일기(약대 68), 한귀희(미대 68), 박혜옥(게스트) 등 총 13점

"장학기금도 모으고 시상식겸 한식 바베큐 파티로 오랜만에 회포도 풀었다"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모금 춘계 골프대회 1만 4천 350 달러 모금



대회 참가자 기념촬영

【기사제공: 김창수 논설위원 및 뉴욕 지역 동창회 장학위원장】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손대홍)는 지난 5월 29일 뉴욕시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클리어뷰 골프장에서 2019년도 춘계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메달리스트 상은 김창수 (약대 64) 동문이 차지하였고, 장타상, 근접상 등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메달리스트 : 김창수 (약대 64)
- ▲ 1등상 : 권정덕 (의대 58)

- ▲ 2등상 : 한경수 (문리대 57)
- ▲ 3등상 : 김문경 (약대 61)
- ▲ 장타상 : 송용길 (신문대학원 69)
- ▲ 근접상 (전반): 한태진 (의대 58)
- ▲ 근접상 (후반): 정준영 (문리대 67)

6월말로 뉴욕 동창회의 임기가 끝나는 손대홍 회장은 마지막 행사로 가진 이번 골프대회를 주관 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 두 가지를 실천하였다.

첫째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위하여

미니버스 두대를 동원하여 포트리 한남체인 파크장에서 단체로 출발한 것이다. 둘째는, 클럽하우스 옆에 마련된 피크닉 장소에서 디너와 시상식을 가지면서 돼지고기 삼겹살과 양념 오징어를 중심으로 한 한식 바베큐 파티를 연 것이다.

한편, 김창수 장학위원장은 십사일반으로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날까지 1만 4천 350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기부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우측은 장학기금을 납부한 동문들의 명단이다.



한경수 동문, 김문경 동문, 권정덕 동문, 손대홍 회장



한태진 이사장, 김창수 장학위원장, 정준영 동문, 송용길 동문, 손대홍 회장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	\$2,500.00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손대홍)	2,000.00
약대 동창회 (회장: 배상규)	1,000.00
오인석 (법대 58)	1,000.00
한태진 (의대 58)	1,000.00
이전구 (농대 60)	1,000.00
김창수 (약대 64)	1,000.00
성기로 (약대 57)	500.00
손경택 (농대 57)	500.00
김문경 (약대 61)	500.00
신용남 (농대 70)	500.00
손대홍 (미대 79)	500.00
간호대 동창회 (회장: 박승화)	300.00
정해민 (법대 55)	300.00
강에드 (사대 60)	300.00
곽선섭 (공대 61)	300.00
사대 동창회 (회장: 조달훈)	200.00
김광현 (미대 58)	200.00
장수영 (미대 70)	150.00
이상복 (의대 56)	100.00
민준기 (공대 59)	100.00
임도혁 (공대 59)	100.00
이종대 (약대 65)	100.00
정준영 (문리 67)	100.00
김광수 (공대 72)	100.00
합계	\$14,350.00



회창한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Deer Creek G. C. 에서 5명의 동문이 모여서 골프 실력을 뽐냈다. Gross champion 배규영, 2nd 이우영 / Net champion 이지현, 2nd 김 준 / Longest 배규태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만으로 언제 만나도 어렵지 않고 허물이 없고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음에 선 후배 동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을 떠나 떠나면 미국 땅, 그 중에서도 한인 동포가 적은 중부에 살면서 이렇게 선배 후배로써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는 가을, 9월 14일(토)에는 예년과 같이 아침에는 친선 골프시합, 오후 5시 30분 부터는 웨라톤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모임이 있습니다. 오명순 드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만남 지속하길..."

하트랜드 동창회, 동문 친교 골프와 임원이사회 개최



임원 이사회

【기사 제공: 오명순 회장, 이주현 총무】 전국적으로 유난히도 퍼붓는 비 덕분에 온갖 초목은 그 싱싱한 푸르름을 자랑하는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하트랜드 지부 동문 선배, 후배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말에는 동문 친교 골프와 임원 이사회 그리고 푸짐한 저녁식사로 가까이 계시는 동문님들이 참석하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장소 제공과 맛있는 훈제 돼지갈비 및 삼겹살을 구워주시고 재미있는 오락까지 담당해 주신 이주현 총무와 남편 데니스 조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골프 시합을 진행해 주신 이우영 체육부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멀리 오마하에서 5시간 이상 운전해 오신 오태오 이사장님, 김명자 선배님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날에는 머지않아 팔순을 맞이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년 이상 시리아 난민을 위한 선교를 다녀오신 호민선, 호연희 선배님께서 오랜만에 참석하시



서 Post-Mission 경험을 발표하신 귀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가장 고학번이신 김호원 (52 학번) 선배님으로부터 가장 후배인 김경운 (2000) 동문까지 선 후배의 벽을 건너 뛰어 함께 배를 잡고 웃음을 나누었던 오락 시간이 별미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권식 (공대 61) 동문 군복무 시절 백령도 야학 제자 11명 미국 초청



김권식 (공대 61)

【기사: 김원영 편집인】 미네소타주에서 태양광업체 EVS를 운영하고, 2010년 미네소타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권식 (공대 61) 동문 (동창회보 2019년 10월호 인터뷰 기사 참조)이 오래전 군복무 시절 백령도에서 야학을 할 당시 학생들을 50년 만에 미국으로 초청하는 만남 행사를 갖는다.

김 동문은 모교 공대를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 중 백령도에 배치 된 후, 부대 옆 교회에 만든 중등과정 야학 '신우학원'의 영어와 수학 선생이 되어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백령도에 중고등학교가 있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군부대가 야학을 개설한 것.

50년이 지난 후, 관광차 방문한 백령도에서 우연히 옛날 제자들을 만나 반가운 해우를 했다. 김 동문은 너무 반가워서 이들 모두의 미국 초청을 추진했다. 6월 10일 미국에 도착하는 백령도 신우학원 졸업생 11명은 50년 전 백령도에서 야학 수업을 받았던 것처럼 10박 11일 동안 미국 곳곳을 돌아보며 김권식 박사의 미국 수업을 듣게 된다.

민병갑 (문리 63) 동문 미국사회학협회'공로상' 수상, 이민사회 연구 업적 인정



민병갑 (문리 63)

【기사 출처: 뉴욕한국일보】 뉴욕 퀸스칼리지 사회학 석좌교수인 민병갑 동문이 미국사회학협회(ASA) 아시아인아메리칸 분야의 2019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 이민사 연구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간 민 교수가 한인들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의 이민 사회에 대한 여러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민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이민과 아시아인아메리칸 두 분야에서 모두 상을 받게 돼 한인 학자들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관련 서적 출판 및 수업을 통해 미국 사회에 더 많이 알릴 계획이며 이를 비롯해 한인 이민자들에게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로상 수상식은 오는 8월10~13일 맨해튼 셰라톤 뉴욕 호텔에서 열리는 ASA 연례 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 교수는 지난 2012년 ASA 이민 분야에서

장수인 (음대 76) 동문 민주평통의장 대통령 표창 수상,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민간 외교 등 공로



장수인 (음대 76)

【기사 제공: 민주동창회 부회장, 장수인】 지난 6월 1일 장수인 동문(음 76) 이 민주평통에서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수인 동문은 필라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와 보스톤합창단, NE 한인회와 민주평통, 서울대 NE 동창회장과 민주동창회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의장



대통령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민간 외교 등 공로에 대해 자문위원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다. 장수인 동문은 "모든 일들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준 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들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감동을 나누는 보람있는 시간들이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제3회 (2019-2020 학년도) 장학생 발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강에드 (사대 60)

뉴욕지역 동창회 제32대 회장을 역임한 에드워드강 (사대 60) 동문이 설립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에서는 제3회 (2019-2020 학년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5,000 수여
- 1. An, Ji Young (Upenn)
- 2. Cho, Daniel (Brown)

- 3. Juilliard (TBA by School)
- 4. Kim, Daniel (Emory)
- 5. Kim, Justin (Brown)
- 6. Kim, Sang Min (Harvard)
- 7. Kim, Un Bi (Drexel)
- 8. Lim, Cleopatra (Columbia)
- 9. Park, Chae (Cornell)

특별장학생 \$2,500 수여 Han, Grace (Vassar) Jung, JoAnn (Wellesley)

장학금 수여식은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edwardkangfoundation.org에서 찾을 수 있다.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은 IRS로부터 IRC 501(C) (3)에 따라 허가 받은 Non-Profit Private Foundation으로 외부로부터 일체 기부금을 받지않고 운영된다.

몽골 출신 오랑거 (법대 06) 동문, 민주동창회 회원 등록



몽골 초원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법대 06학번 오랑거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가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인 몽골 학생입니다. 오인환 (문리 63) 12대 민주동창회 회장님의 추천으로 서울대 민주동창회 회비에 제 짧은 이야기를 실어보고자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유학가서 먼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2006년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유학가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한국을 출장겸 방문했던 아버지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몽골이 1990년도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개혁이 시작되고,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간 시기는 한참 몽골 부모들이 자식을 해외로 유학보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서울대 한국어학당을 다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한 분이어서, 어렸을 때 부터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게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법대에 입학을 하였으나 다른 외국인 학생이 없어 가끔 외국인인 걸을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혼한 일을 서로



조지워싱턴 로스쿨 재학 중인 오랑거 동문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점이 있었지만 친절한 한국인 동기들 덕분에 모든 과정을 해내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즐거웠던 점은 제 이름이 오랑거라서 사람들이 오 씨인줄 알고 저를 랑거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제 성이 "오"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오랑거입니다. 그런데 랑거라는 이름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저를 랑거라고 불렀다. 저는 잘 대답합니다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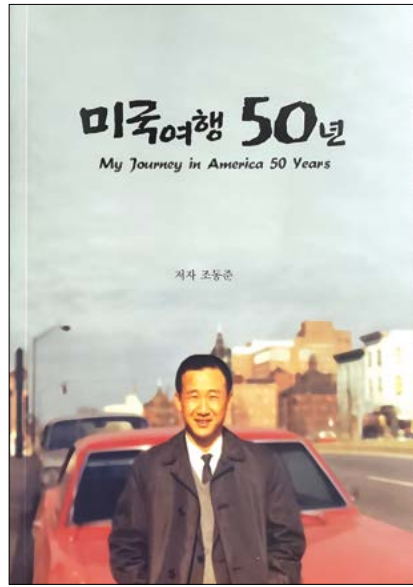
한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은 작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귀국하여 공무원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미국 유학 준비를 천천히 하였습니다. 마침 조지워싱턴대,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으며, 저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하고, 현재 조지워싱턴 로스쿨 졸업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워싱턴 로스쿨 재학 중 서울대 워싱턴 지역 동창회 정평희 회장님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되면서, 서울대동문 커뮤니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오인환 전 회장님을 통해서 서울대 민주동창회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한국은 긴 역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문여러분 모두 몽골을 많이 방문하고 관심 가져 주세.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몽골동문들이 몽골에서 여러분 동문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준 (의대 57) 동문, 회고록 『미국여행 50년』 출간



조동준 (의대 57)



【보도 자료 제공: 조동준 동문】 조동준 (의대 57) 동문이 회고록 "미국여행 50년, My Journey in America 50 Years" (published by 중앙 A&D in LA, CA)을 지난 3월 출간했다. 조 동문은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해군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한 후, 도미했다.

조 동문은 에필로그에서 "급행 열차처럼 지나간 세월을 이제는 되돌아 볼 시기가 생각하여 기억이 더 흐트러지기 전에 작은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가장 후회스런 일은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으니 부모님과 살아보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조 동문은 "아직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이 책의 제목을 '미국 여행 50년'이라 지었다"고 했다.

조 동문은 젊은 시절 미 동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다. 바다를 낀 LA 서부지역 사우스베이로 터전을 옮겨 조동준 산부인과를 개원 5천여 명의 아기의 탄생을 도왔다.

미주 서울대의대 동창회장과 사우스베이 라이온즈 클럽 회장, 나성 미주 평화통일 자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2년에는 한국 이민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창립이사이자 첫 모금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은퇴하여 인생의 업그레이딩에 힘쓰고 있다.



“인연 따라 세월 따라” 최진석 (법대 64)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한다.

살아온 세월의 뒤안길을 따라 만났던 수많은 사람을 그려본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유학을 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곳 미국 이민 생활 3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사주에 천복성이 들어 식복이 있고 천역성이 있어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라 하지만 중동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오대양 육대주를 빠지지 않고 돌아다녔다.



최진석 동문 부부

그러나 그 많은 관계와 인연 중에서도 나는 오늘 안 계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생각해 본다. 625 때 나가셔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나로서는 아버님의 모습도 기억나지 않고 특별한 추억도 없으나 아버지로 인한 영향력은 내 인생 전부에 미칠 만큼 크고 대단하다.

대학 합격하던 날 친구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와서 기뻐했고 저녁을 함께 했고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심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나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얼마나 지금과 달라졌을까 등을 긁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입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었음 이 밝혀지고 이것이 아버지와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제는 처가 쪽으로부터 제기되어 위기가 있었다. 처남이 미국에 있는데 나와 결혼하면 미국에 가기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반대쪽으로 애기했다. 다행히 중앙정보부 감찰실장과 연이 되어 그의 자세한 설명과 보증으로 간신히 해결되었다. 현재 자녀들과 손자까지도 달라질 수 있었던 인연과 깊이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다.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종합상사에서 일하던 중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서였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출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유신정권

이 물러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로서는 다행이 여권 문제가 해결되어 중동에 나가 3년간 열심히 일하고 약간의 이민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게된 것이다.

이민 오자마자 빠르게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은 실은 북한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흥동근 목사님이 그런 주선을 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알아봤지만 결국 헛수고로 끝났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아쉬게 생각하나 인연은 거기까지고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 그 또한 대단한 운명이라 하겠다.

사족이지만, 고등학교 때 운동을 열심히 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올림피아까지 생각한 것도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금단 선수가 동경 올림피아에서 우승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뉴스가 특종으로 전파될 때의 흥분이 지금도 느껴진다. 다섯 살 때 헤어져 70여년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자의 인연이지만 나는 안 계신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깊은 인연의 계곡을 지나는 존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오늘 아들의 간절한 사연을 올립니다. 부디 통촉하시어!

엄종열 (미대 61) 동문 미동부 국제 문화 축제에서 한국 전통 문화 홍보



【기사 제공: 엄종열 원장】 지난 4월 27일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데일 지역 North Penn High School에서 International Spring Festival이라는 미동부 최대의 국제 문화 축제가 개최되었다.



전통 병풍과 한국 가면, 각종 공예품과 한국 문화 관계 서적들을 전시 소개하여 4,000여 명의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금년에는 30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자기 나라 문화를 유감없이 자랑하고 홍보하였다. 특히 한국 Booth에 International Spring Festival Chairman Dr. Val Arkoosh씨와 Co-Chair 서재필 재단 최정수 회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미주 한국 전통 문화 연구원(원장, 엄종열 동문, 미대 61)이 매년 한국을 대표하여 이 행사에 참가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금년에도 거북선, 신라 금관 모형을 비롯해 한국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R code image)



윤송숙 (약대 66)

노년을 지혜롭고 너그럽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내일을 꿈꾼다. 마음은 급한데, 행동이 따라 주지 않는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나이가 되었다. 70이 넘어도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중이다. 주위의 부추김도 있고, 속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꿈틀거림 때문이다.

세상은 좋아져서 백세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30년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잔인하기조차 하다. 65세 전후로 은퇴하는 풍조가 대세라, 대책없이 은퇴를 하고 은퇴한 삶을 즐기기도 보다는 후회하며, 다시 직장을 갖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

고용주들도 경험없는 젊은 이들과는 신중하고 경험있는 나이든 분들을 선호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맨질 맨질 대머리라, 앞에 있을 때 무성한 머리를 움켜 잡지 못하면,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서 재빨리 날아 간다고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나뉘어야 하는 이유다.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였는가? 매일의 일상이 지루하고 싫증이 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되도록 스트레스 받는 일을 피한다 해도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는 그로 인해 도전을 받고 활기를 띄게 하기도 한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기도

"좋은 습관은 튼튼한 심신의 토대다. 꾸준한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과 견고한 것이 성실이라는 이름의 재산이다. 생애의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한다."

한다.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버티어 온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롭고 너그러워야 한다. 노람이나 노추의 행태를 보이지 않아야, 적어도 젊은 이들과 어울릴 수 있고 분이 될 수 있다. 젊은이들과 겨루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귀찮게 봐 줄 수 있기도 하다.

인공 지능에 대한 말이 많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도 즐겁게 하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웃도 도우며, 목표를 세워서 무엇인가 도전도 해 보며 삶에 활기를 부여 넣으면 즐거울 것이다.

돈이 없어도 전남 강진에 사는 할머니 8분은 글을 깨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며 성취감으로 즐거워한다. 88세된 워렌 버핏은 일을 좋아해서 사무실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재미가 나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열정이라고 하던가? 창의적이고, 도전할 가치와 보람 있는 일에 그러한 열정이 생겼으면 한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꿈은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하다가 병이 나는 거 보다는 낫겠지만, 돈 번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못 이루기도 하겠지만 못 이루든 어떠랴, 하는 동안 순간순간의 즐거움으로 이미 보상은 받았는데...

70세가 꽤 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춘처럼 사는 70대가 있다. 75세인데도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체포된 한인이 있다고 한다. 그 팔팔하고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에 힘을 쏟았다면 얼마나 좋으랴. 자기도 편하고 주위에 편하고... 생각꼭지를 잘못 들면 주위에 민폐고, 자신도 불행하다. 적어도 덕도,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중간은 가겠지만, 우아하지는 않더라도 사랑받게 건강하여 조금이라도 사회에 덕을 끼치면 좋으리라.

노년들이여! 분발하여 좋은 일 하며 살자.

내가 누군지 알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여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낸 세월이 행운이긴 하지만 추억에 파묻혀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노년에 건강하고 수다를 떨 친구가 있고 젊은이들에게 훈계를 삼긴다면, 노년이 행복하리라는 친구도 있다.

젊디 젊진 않아도, 아직은 무엇인가 할 수 있

이방인. 송윤정 (인문 89).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정지용 <고향> "하지만 당신에겐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나쁜 습관은 게으르거나 술 마시거나 참음성이 없거나 그렇지만 당신은 달라요." 그가 수첩 종이에 'Open Heart'라고 쓴다. "당신의 나쁜 습관은 너무 솔직한 거예요. 당신은 아이디어가 참만한데 그걸 가슴에 간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었다. 회의를 잡을 때 한국은행 측에서 태평로 삼성빌딩에 있다고 언급한 것이 생각나 버스 기사분께 물었다. '이곳이 태평로인가요?' 기사분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한국은행에 간다고 하니 다음 정거장이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결혼은 했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내게 "아이들은 몇이고 남편은 몇 명이에요?" 하더니, 꼬깃꼬깃 접어 건네준 종이를 열어 보라고 한다. 한참을 펼쳐 열어보니, 종이엔 'Rose 3' 이라고 쓰여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내게 그는 자신의 수첩 뒷면에 놓인 사진을 펼쳐 보인다. 삼사십 명의 줄망줄망한 아이들. "나는 신의 메신저이며 신을 섬기며 고아들을 돌봅니다. 신이 나를 오늘 이곳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건네라고 하신 거죠.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합니다."

는 나이이니, 새 역사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자.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위를 지키고 품격있는 언어를 써야겠다. 언어는 쓰는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고, 천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의 인격은 그의 언어만큼 추하고 공허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밝고 힘차고 소망에 찬 미래를 보고, 단일한 마음에 묶여, 하던대로 하는 습관과, 편하려고 하는 자신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튼튼한 심신의 토대다. 꾸준한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과 견고한 것이 성실이라는 이름의 재산이다. 생애의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한다.

지혜롭고 너그럽게.



백성욱 (불문 70)

눈이 듣고 귀가 보는 예술의 세계

20세기 전반기의 프랑스 문학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폴 클로델(Paul Claudel, 1868-1955), 그가 남긴 한 권의 미술비평서는 제목이 독특하다. 『L'oeil écoute』, 이는 우리말로 '눈이 듣고 있다'라고 직역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미술비평서 가운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 티찌아노(Tiziano)의 작품 '비너스와 음악가'에 대한 클로델의 설명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美的 세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를 놀라고도 새로운 감각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가장 예로부터 색시해 보이는 여인의 나신(裸身)에 숨겨진 영적(靈的)아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클로델은 즐겨 육체적, 감각적 美와 영성적 美 사이의 조화(harmony)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조화는 음악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러오는 것이라고 한다.

음악애호가이지 하나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내가 재미교포 김구자 화백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천구(天球)의 음악(Music of the Spheres)'이라는 제목 때문이었다. (복수 명사 Spheres가 뜻하는 내용은 물론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리라.) 우리말로 '천구 의 음악'이라고 하든 '별들의 음악'이라고 하든 'Music of the Spheres'는 르네상스와 과학 혁명에 이르는 두 세기 동안 근대과학의 초석을 놓았던 수학자,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살 아있는 아이디어(living idea)'였다. 갈릴레이의 아버지가 음악가였고,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 같은 데카르트도 음악에 관한 글을 남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었다. 시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방대한 저서 가운데 데도 음악에 관한 작품이 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늘과 땅의 기운(氣運)을 얘기하던 일은 동양과 서양이 다를 바 없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리던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모두가 음악가로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요 종교가들이었다. 우리가 '수학(數學)'이라고 일컫는 학문은 그리스語 'Ta Mathemata (the mathemata)'의 번역이다. 이 수학자들 중에서도 시끄러운 일상생활에서 물리나 조용히 학문에 전념하던 이들을 가리켜 '명상하는 사람들(contemplatives)'이라고 칭하였던 바, 이들은 산술(Arithmetics), 음악, 기하, 천문학, 이내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고대(古代)의 천문학(astronomy)은 점성학(astrol-ogy)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다. 이들은 음악(Musica)을 통하여 높낮이가 서로 다른 소리들, 뚜렷이 대조되는 소리들 사이의 화음(harmony)을 추구하였으며, 천문학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감싸고도는 거대한 天球(sphere)를 '하나의 세상(Uni-verse)'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가운데 내재(內在)하는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세계(Cosmos)'를

찾고자 명상하며 탐구하였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나 그리스도敎 신학과 접목(接木)됨으로써 중세말까지 서양인의 머릿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코스모스(Cosmos), 즉 '조화와 균형을 갖춘 통일체로 서 자연(Natura)의 개념은 그러나 16세기 르네상스와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자연은 이제 하나로서 통일된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끝없이 움직이며 돌아가는 광막한 우주공간이 된 것이다. 이는 서양과학사 교과서에 낱알이 기록되어 있는 사 실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는 시대는 역사의 거대한 차라졌다. 그리하여 17세기 중엽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빠스칼(Pascal, 1623-1662)의 유명한 글귀 "끝 없는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은 오늘 우리 귀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영원히 침묵한 상태로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자연현상 - 18세기까지 물리학은 "자연의 철 학"이라고 불리었던 사실을 기억하자 - 을 기초로 근대과학이 성립되던 이 시대는 또한, 오늘 날 우리가 '고전음악(classical music)'이라고 하는, 학문인 동시에 예술로서의 음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여느 시대, 여느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해온 음악, 세상의 모든 음악에는 '가락(melody)'과 '박자(rhythm)'가 기본요소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세 번째 요소로서 '화음(harmony)'을 갖추고 있는 음악은 서양 고전음악뿐이다.



Music of the Spheres



Cosmic Fantasia

서양음악도 애초에는 멜로디와 리듬만으로 존재하다가 르네상스 시대 교회음악에서 '다성음악(多聲音樂, polyphony)'이 창안되었고, 나아가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대위법(對位法, contrapunctus)'이라는 수리적(數理的) 짜임새의 화성학(和聲學) 기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고전음악(classical music)'이라 일컫는 예술이 새롭게 모습을 드



이홍빈 (의대 57)

"Hello, the 'Path' Travell' d"

Has the path you've travell'd
My friend
Been such sparse in barren a crowds ignorant and unmorall'd?

Nil much time iota of interest for you the others
To hang along for warm a quibblin' so mundane
Been of such sparsity yet amongst the ignorant unmorall'd alike?

Just as for us accustom'd to've been easy
To look tagg'd merely 'round
Been wonder'd if not to nod any or to all awesomely smilin'?

The love and bare passion eager'd in ye'
*Bein' far high aloft to be caress'd
Been let alone though mockin' or lamentin'?

Worthless comin' along across nor
Worth bein' arguably such close lingerin' along
Been yet deni'd all the more amongst the ignorant and unmorall'd alike?

They've thenceforth been tugg'd sparse 'round
And what if the love even the passions
Been henceforth (how!)you to mourn not if too late?

And what if the very path travellin' false happy ... circumspectly smilin' ...
Couldn't we have aged longer and younger
Been beholdin' everyday debt thankin' you the others?

리네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Renaissance)가 古代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본받은 문예 부흥이었다면, 서양고전음악은 아득한 옛날 피타고라스학파에서 탐구하던 바, 높낮이가 서로 다른 소리들 사이의 화음(harmony)과, 크기가 서로 다른 별들 사이의 '조화와 질서(cosmos)'의 개념을 새로이 부흥시킨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8년 6월 어느 날 나는 '남가주 중견 여류작가 전시회에 가서 김구자 화백의 두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Music of the Spheres』는 추상화 같기도 하고 아닌 듯도 했다. 별들(spheres) 사이사이로 불꽃처럼 원형을 그리며 수 없이 펼쳐져 있는 원통형 물체들, 이는 무엇일까?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내 눈에 이들은 大성당의 오르간을 구성하는 크고 작 은 여러 개의 파이프로 인식되었다. 한 고구(敎區)를 다스리는 주교의 좌석(Cathedra)이 있기 예 주교좌성당(Cathedral)이라고 일컫는 성당건물에는 제대(祭臺)가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으레 파이프오르간이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오르간 또한 르네상스 이전에는 없었던 악기였다. 오르간은 '多聲음악/Polyphony'을 창조하고 발전시킨 르네상스 시대 장인(匠人)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다. 수많은 파이프와 여러 층으로 된 건반과, 갖가지 악기 소리를 내게 하는 소리마개(音槌) 장치 등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 없이 오르간은 서양음악에서 '多聲음악의 대명사(

代名詞)로 불리며 악기 중의 악기로 군림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티찌아 노의 그림 속 음악가도 오르간 연주자이다.) 오르간 음악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하는 J.S. Bach의 작품을 듣고 있노라면 소리를 느끼는 귀에 로마네스크 성당의 장엄한 건축미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청각과 시각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대위법적으로 얽혀 나가는 것 같다.

김구자 화백의 또 다른 작품 『Cosmic Fantasia』는 고전 그리스語의 어원(語原)을 되새기 게 해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Cosmos'는 "조화와 질서의 세계"였고 'Fantasia'는 "창조적 상상력"이었다. 원형의 별들 사이로 이번에는 나선형(螺旋形)의 곡선들이 서로 얽히면서도 어디론가 퍼져 나가고 있는 듯하다. 시작이 있었기에 종말을 예고하는 一神敎(monothemism)에서 시간의 개념은 선(線)으로 표시되는 한 편,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돌고 도는 시간의 개념은 원(圓)으로 표시된다. 나선은 그러나 돌고 도는 듯이 보이지만 어디론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 시간의 또 다른 이미지라고 한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뚜렷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하며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적어도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물리적 공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예술이다. 한데, 그러한 음악을 듣고 난 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듣기 전의 마음과 확연히 달라져 있다.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이 황홀한 감흥에 젖어든다. 왜 그럴까? 침묵해 버린 자연 속에



김수영 (사대 57)

섬진강 메기 매운 탕

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보고 싶었던 메기 물고기. 이 물고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때문이다. 아직도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많지만, 메기란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궁금증이 많았다.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가 '메기와 청어 이야기'를 자주했다는 얘기를들은 후 메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번 서울에 체류 중 메기를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메기 매운 탕을 먹을 기회가 생겨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이 섬진강 식당은 섬진강에서 메기를 잡아다가 큰 어항에다 수 십 마리를 기르면서 살아 있는 손님을 잡아 즉석에서 매운 탕을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다. 어항에 있는 메기를 보니 엄청 컸다. 팔뚝만큼 큰 메기들인데 큰 것은 2미터가 넘는 것이어서 큰 고래같이 보인다고 했다. 몇 년 전에 서울 한 강에서 사람 키 만한 메기를 잡은 것이 큰 뉴스감이었다고 한다.

이 섬진강 식당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산을 지나 송추로 가는 길목에 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최혜빈 시인이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하였는데 추억에 남을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면 내가 묵은 호텔에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 섬진강 식당으로 안내했다. 전채 현 남자 시인이 고맙게도 운전을 해 주셔서 먼 거리를 올 수 있어서 여간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도착하니 시골에 있는 식당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고객들로 붐볐다.

처음 먹어보는 메기 매운탕이라 맛이 어떨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든 것은 미나리를 등백 담은 큰 소쿠리였다. 미나리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던 미나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잎이 크고 푸르고 싱싱한데 놀랐고 고통받처럼 큰 소쿠리에다 가득 담아 내놓는 주인 미나님의 큰 손에 또 한 번 놀랐다. 저 많은 양을 세 사람이 어떻게 다 먹으라고 저리도 많이 주는가 싶었다. 이날 저녁은 미나리로 잔치상을 벌이는 기분이었다.

매운 탕이 계속 끓고 있는 동안 싱싱한 생 미나리를 메기 위에 얹어 살짝 데쳐 먹는 맛이별미였다. 생선 메기가 익을 동안 세 사람 모두가 미나리를 먹고 또 먹고 끝없

이 먹으니 그만한 미나리가 거의 바닥이 나 못 먹겠다고 했을 때, 세 사람이 미나리에 취해 메기를 먹을기력을 잃은 것 같았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래도 맛은 봐야 하겠기에 세 사람이 맛있게 나누어 먹기로 했다. 메기 살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입속에 넣자마자 솜사탕 녹듯이 스프르 입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배가불러 씹씩 소리를 내며 땀을 뻘뻘, 매운맛에 눈물을 질근 짜며 세 사람이 서로 쳐다 보며 먹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다. 우리가 힘겹게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눈여겨 보았다면 아마도 포복절도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급하게 선통기를 달라고 외치자 주인 미나님이재빨리 가져다주었다. 아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땀을 식히고 눈물을 말리는 것이 아닌가!그제야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벌써 어둑어둑 밤이 오고 있었다. 전채표 시인이 여기까지 온 길에 1시간 거리에 있는소호아트미술관에 들러 진열해 놓은 그림을 감상하고 가자고 제안을 했다. 언제 여기 또올 수가 있을까 싶어 승낙하자 전채표 시인이 차를 몰고 미술관을 향해 운전했다. 소호아트미술관장인소 호 김원준 화백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최초 일필 추상화를 그리는 김원준 화백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피카소 그림처럼추상화라 문외한인 우리가 감상하기는 좀 어려웠으나자 구 보니 이해가 좀 되었는데 화가의 설명을 들으니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사진도 찍고 담소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낮에 방문했으면 뒤편에 수목원에도 안내하고 남이섬이 가까운데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하며 두 부부는 아쉬움을 표했다. 초면에 말만 들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메기 매운탕을 먹으러 왔다가 김원준 화백과 그림을 본 것은 덤으로 얻은 큰 축복이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차 안에서 최혜빈 시인과 전채표 시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득 채워졌다. 나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거리로 내 남은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니 두 분시인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또한, 토인비 박사가 생각났다.

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차 안에서 최혜빈 시인과 전채표 시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득 채워졌다. 나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거리로 내 남은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니 두 분시인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또한, 토인비 박사가 생각났다.

서 태어난 음악, 시작과 끝을 뚜렷이 점찍어 주면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 소리의 예술이 우리를 초자연(超自然)의 세계로 데려가주기 때문이 아 아닐까? 미술비평서 『눈이 듣고 있다』의 저자 클로델은 어느 날 빠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올라 퍼지는 오르간 음악을 듣는 순간 神의 숨결을

느꼈다고 한다. 나선(螺旋)의 축제와도 같은 『Cosmic Fantasia』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도 Bach의 오르간 곡 『Fantasia and Fugue in G minor』(Bach 작품번호 542번)이 들려오는 듯싶다.



이태상 (문리 55)

어디에 도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의미 없고 형태 없는 혼돈의 카오스Chaos에서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 코스모스Cosmos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스모스란 단어와 화장품이란 뜻의 코스메틱스 cosmetics의 어원이 같은가 보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에게도 큰 영향을 준 19세기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페도로비치 페도르브 Nikolai Fedorovich Fedorov (1829~1903)는 인류가 당연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죽음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았으니 부모에게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이 자식 된 우리 의무이자 도리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미세분자 molecules의 해체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해체된 이 모든 요소와 분자들을 다시 제대로 조합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해체 분해된 분자들은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떠돌다가도 어쩌면 다른 별에 정착해서 다시 생명체로 부활할 수 있으리라 고 페도로브는 생각했다.

지구에서 태어나 살다 죽은 생명체들이 다른 별로 이주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영생불멸한다는 얘기가. 이는 모름지기 동물, 식물, 광물, 아니 생물, 무생물 가릴 것 없이, 우주만물이 우주 생명체의 DNA란 자기 생기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구 어디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같은 것을 보고 느끼며 소통하고 있지 않나.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사회적 내지 영적으로 교신하고 교

통하고 있지 않나.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사회적 내지 영적으로 교신하고 교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즐기던 이야기가 '토인비의 메기와 청어 이야기'다.

그 내용인즉 영국의 어부들이 북극에서 청어를 잡아 런던에 도착하면 거의 모든 어부가 잡은 청어들은 다 죽고 말았는데, 유독 한 어부의 청어들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다른 어부들이 그 어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메기 한 마리를 청어들이 사는 물통에 넣어 두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 달려가면 청어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해 헤엄쳐 도망치고 이리저리 숨고 하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다. 그야말로 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생존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청어들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 예가까운데 적자생존의 법칙을 뒤집은 놀라운 이야기다.

감하게 되었다.

'자아란 것이 하나의 환상이고 환영에 불과하다면 이 자아의식이 어떤 기구나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전달되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드로스필라 멜라노가스터 Drosophila melanogaster라 불리는 과실 파리가 있다. 유전 연구대상이 된 이 해충은 135,000개의 뉴런neurons과 시냅시스 synapses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년 내에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리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본다. 어떤든 인간의 두뇌는 거의 1천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는데 이 숫자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와 맞먹는다고 한다. 아, 그래서 영국의 시인 새뮤엘 코올리지 Samuel Coleridge(1772-1834)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다정한 친구여 뭐든 피한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다. 4000년도 못산다고 생각할 수 없지. 그 정도만 산다 해도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지 않겠니. 정녕코, 그만큼 살더라도 네가 하는 일에 더러 묻혀서 다시 생명체로 부활할 수 있으리라 고 페도로브는 생각했다. My dear fellow! never be ashamed of scheming—you can't think of living less than 4000 years, and that would suffice for your present schemes. To be sure, if you go on in the same ratio to the performance, then a small difficulty arises; but never mind! look at the bright side always and die in a dream!"

클럼버스가 그랬듯이 우리도 어디로 향하는지는 막연히 안다 해도, 어디에 도착할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토인비의 이야기 중에 메기가 엄청 힘이 센 물고기인데 청어를 잡아먹지 못한 패자가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반면 살아남은 청어들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살아남아주인 어부에게 기쁨을 주고 모 든 어부의 감탄을 자아낸 승리자가 된 것이다. 패자가 된 메기를 잡아 매운 탕으로 먹은 인간은 더 큰 승자가 된 것이다. 우리 인간도 청어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더욱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악과 싸워 승자가 될 것이다.

힘이 세다고 자랑하다 패자가 된 메기를 매운 탕으로 끓여 먹어 "메기야 미안하다. 적자생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냐? 최혜빈 시인과 전채표 시인에게 항의라도 해 보렴!"



소설 파친코(Pachinko)를 읽고

정홍택 (상대 60)

‘파친코의 페이지를 넘기며 내 무식(無識)이 새 지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재일 교포’ ‘민단’ ‘조총련’ 같은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은 아마도 내가 신문을 읽기 시작한 중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 후 이 단어들 이 심심치 않게 마스크를 닦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소설 ‘파친코’는 그런 나를 흔들어 깨워주었다. 아, 이들도 피와 역사를 나와 공유한 동족이었구나. 나는 사죄하듯 울어나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이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대판 이삭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랑보다는 동정심에서 임신녀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게 된다. 하나는 남의 씨요 둘째는 내 것이라. 기독교 성직자 답게 내 새끼, 내 새끼 가리지 않고 정성껏 길렀더니... 이 애들의 구석구석 어디 하나 닳은 데가 없지만, 끈끈한 가족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되었다. 이 책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전시(戰時) 일본 땅에 이주하여 1989년까지 살아 간 한국인들의 이야기이다.

(1) 저주받은 피

만아들 노아는 누구보다 똑똑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이상주의자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만큼 순결한 인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여 3학년이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되자 이야기는 급전직하 일종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시중에 나오는 TV 연속극을 닮은 듯 하지만 역시 품위있게 사태가 처리된다. 친엄마를 경멸하고 저주받은 피를 내려 준 친아버지를 증오하다가 외지로 도망가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새 삶을 꾸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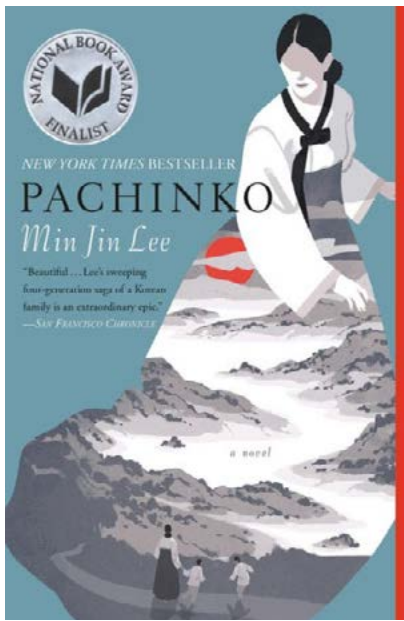
순결한 이상주의자가 살 땅이 지구상에 있을까. 작가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더러워.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살아가는 건 더러워져 간다는거야’ (p 360). 그렇다. 노아는 이것을 배워야 했다. 살면서 때도 묻히고 코딱지도 슬쩍 빼며... 다 그렇게 살고있다. 자칭 고상한 학문과 깨끗한 인격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할 수록 더욱 깊은 진흙밭에 빠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2) 한수라는 사람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그렇다. 한수는 야꾸자다. 사람들은 야꾸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경멸하면서도, 그들 앞에 서면 무서워 오줌을 심다. 직장 이 막히고 인종 차별을 당하고 천대받는 상황

에서 그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 그가 훗날 작으나마 힘이 생겼을 때, 조선 어부들에게는 생선 매입 가격을 언제나 넉넉하게 사 주었다. 그 평판 덕분에 순자는 너무나 쉽게 그에게 무너졌다.

그 후 일본에서 순자 일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와세다에서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 준 것도 모두 자신을 숨긴 그의 선행에 기인한다. 고생 고생하며 늙



‘파친코.’ 영문판과 한글번역본

어 꾸그렁 할매가 된 순자를 끝까지 그림자 같이 떠돌던 한수를 나는 좋아한다. 또 온 정성을 다바쳐 20여년 성장시킨 열매가 저 혼자 뚝 떨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고뇌했을까는 저자가 우리 상상엔 맡겼다.

여기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드 버틀러를 떠올렸다. 그는 스킨트 오하를 눈에 보일 듯 말 듯 보호하고 도와준 멋진 신사이며 동시에 전쟁무역꾼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한수, 그 사람도 시대사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국을 꿰뚫어 보며 일찌감치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다. 또 미국땅에서 돌로 갈라져 싸우는 두 집단을 가리켜 ‘징징거리는 좌파 조총련, 완전 바보들의 집단 민단’이라고 일갈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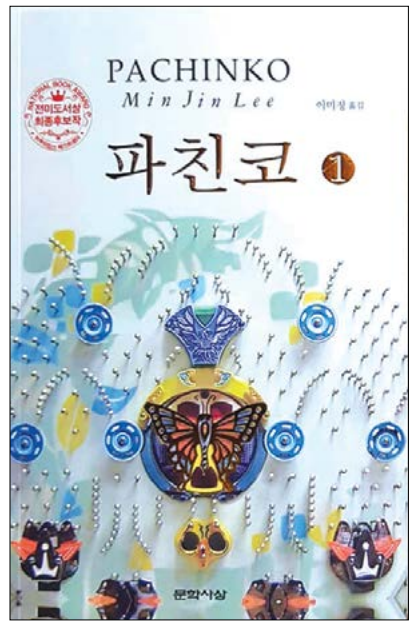
(3) 모자수

소설 파친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다. 위로는 엄마와 형이 있고 아래로는 아들 솔로몬의 행로가 펼쳐진다. 모자수는 독심있는 낙천가이다. 비록 형처럼 깊은 학문은 없지만,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불평없이 길을 헤쳐나간다. 학창시절 일본인 친구들의 갖은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즐겁게 지낼 줄을 안다. 그러다가 마음 약한 일본 급유가 왕따당하는 것을 보자 도움을 주어 인생의 절친이

된다.

파친코의 거친 세계에서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인다. 사람들의 돈을 게임으로 갈취하고 세금은 최대한 포탈한다는 세간의 통념을 깨고 그는 법과 양심을 따르면서도 요령있게 자기 사업을 운영해 간다. 번 돈으로 불쌍한 동포나 자선기관에 아낌없이 기부하는 것도 또 다른 일면이다.

그러나 뉘니뉘니 해도 모자수의 최대 수익은 아들 솔로몬의 존경을 획득한 것이다. 노이를 닮은 솔로몬이 세파에 휩쓸려 직장일고 애인일고 방황할 때 등대가 되어준 모자수. 자기의 꿈을 아들을 통해 실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구약의 보아스가 훗날 다윗왕의 선조가 되었듯이 모자수는 솔로몬의 멘토 팀에 모자람이 없다.



(4) 솔로몬과 피비 그리고 선자

구약의 솔로몬왕 때 이스라엘 문화가 활짝 피었듯이, 이 소설 속의 솔로몬도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의 장점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그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로 똑똑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의 열망인 영어를 마스터했다. 솔로몬이 미국 유학시절에 만난 여자가 한국계 미국인 피비이다. 솔로몬은 4대째 일본서 살아도 일본 시민권을 딸 수 없어 한국 여권을 쓰는데, 피비는 미국 이민 이세로서 태어날 때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피비는 솔로몬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와 가족간의 끈끈한 연대를 호응하며 즐기지만, 시댁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보다는 우선 자기의 커리어를 우선한다. 남녀간의 사랑도 ‘공감과 존경’을 앞세운다. 그리고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피비가 처음 솔로몬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 여자들은 미국에서도 한식을 자주 먹느냐고 물었다. (p 334)

“저희 엄마는 요리를 안하세요.”
“뭐라고?” 식구 모두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조선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
“주말에는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요.” 피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 집 식구들은 조선인 엄마가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피비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자기 엄마와 이모들은 요리를 많이 하고 먹을 걸 챙겨주는 여자를 경시했다고도 말했다. 피비는 결혼보다는 자기의 커리어(Currier)를 앞세우는 현대 여성의 상징이다.

(5)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책 <파친코>는 이 말로 시작한다. 어찌 역사가 인간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가? 역사는 인간의 동향을 그냥 기록할 뿐이다. 이 나라를 망쳐놓은 자들은 바로 정치가들이었다. 조선이 망하기 전 대원군과 고종 그리고 사색당파의 그 행태는 그야말로 열국들에게 ‘날 통채로 잡아잡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재상들은 일본 황제에게서 작위를 받아 명명거리고 살다가 제 명에 죽었다. 이들의 눈에, 살 길 찾아 일본에 건너간 국민, 위안부나 일본군으로 끌려간 조선의 젊은이들이 보일 리가 없다.

함석헌 옹의 말이 생각난다. 한민족 4,000년의 역사를 지탱해 온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민중들이다. 그의 ‘풀뿌리’ 민중사상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 한민족은 어디를 가도 결코 죽지 않는다. 잡초같이 보이지만 절기게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작가 이민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길 뿐이다.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요시미즈 쓰네오와 신라의 로마 문화

40여년 전에 요시미즈 쓰네오는 와세다 대학에서 “동양 고대 유리의 연구”라는 논문을 쓰고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종류의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로마시대 로마제국에서 제작된 유리 그릇, 2. 페르시아인 글라스, 3. 중국 계통 글라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로만 글라스는 4~6세기 경 신라에서 한정적으로 출토된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대의 백제 고분에서는 단 한 점의 로만 글라스도 출토되지 않고, 고구려 고분에서는 서관관자(西官管子) 제 2호분에서 단 한 점의 로만 글라스가 출토된 것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정밀 조사해 보니 금은 제품, 순금제 장신구, 반지와 팔찌, 목걸이, 상감 유리, 구슬 등이 예외없이 출토되고, 이러한 장신구들이 저 유명한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했던 디자인과 아주 강한 공통성을 가진 형태로 제작되었고, 로마에서 사용되던 누금세공이란 특수한 기법으로 만들어 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일하게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영향권에 속해 왔다고 생각해 왔지만 신라 문화는 중국 문화와는 아주 다른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남대총을 비롯한 여러 고분에서 보여주는 로마 문물은 감옥천 팔찌, 금은 장신구 등 많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지만 그중 제일 귀한 보물은 유리그릇, 로만 글라스였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7점, 북분에서 5점의 후기 로만글라스가 나왔는데, 그물 무늬와 물결무늬 유리잔은 4~6세기 경에 아주 넓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은 지중해 동안 지방에서 만들어져 흑해지방으로 대량 수출되었고, 그다음에는 스텝 루트와 기타 민족들에 의해 다른 로마계통 문물과 함께 전래되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모두 10기에 달하는 고분에서 25점의 로만 글라스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황남대총을 비롯한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등 모든 고분에서도 로만 글라

스가 출토되었다. 옥전 고분은 표면에 청색 점을 두 줄로 찍은 것이 특징인데, 서아시아 유리잔으로 경주이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유리잔이다.



사진 1

25개 로만 글라스 중에서 으뜸가는 백미는 국보 193호인 황남대총 남분의 봉수형 유리병을 꼽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 오이노코에(Oinochoe)라고 불리는 이도기는 시리아 동부 연안에서 주로 제작되어 술을 퍼담을 주전자처럼 쓰였다. 이 병의 주둥이 부분은 나팔꽃잎 모양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주둥이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봉수병, 또는 봉수호(鳳首壺)라고 불려졌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금속 그릇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봉수형 유리병의 주둥이와 목에 파란색 띠를 붙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장식기법이었다. 파란색 손잡이를 귀한 금실로 감아 보강한 것으로 보아 금보다는 유리를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황남대총에는 무려 58,500이나 되는 보물이 출토되어 많은 양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

는데, 그중에 눈을 끄는 것 중, 두가지 만 요시미즈 쓰네오의 언급을 것들을 소개한다. 황남대총 북분은 왕비의 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른손 손가락 위치에 5개의 반지를 끼고 있고, 왼손에는 6개의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진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왼손 손가락 하나에는 2개의 반지가 끼워진 셈이다. 황남대총 왕비는 모두 11개의 반지를 양손에 끼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양손에 많은 반지를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리니우스의 상세한 설명이 소개되고 있다.

원래 로마에서 반지는 손가락 하나 중 약지에 끼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다가 검지에 끼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새끼



사진 2

손가락에 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가운데 손가락 만 빼고는 나머



사진 3

지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게 되었다. 로마 원로원이나 귀족들 사이에 유행했던 반지 끼는 방법에도 가운데 손가락에는 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플리니우스의 반지 끼는 방법은 로

마 문화를 수용했던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20개나 되는 반지와 왕의 무덤인 남분에서 출토된 19개나 되는 반지들도 이런 로마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1세기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로마제국 당국자는 외국인 병사들에게 포상으로 금목걸이를 주었지만 정작 로마 시민들에게는 은 목걸이만 주었다.” 반면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팔찌를 주었는데, 팔찌는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로마 식민지에서 출토되는 금사슬 목걸이와 팔찌에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관습이 반영되고 있었다. 신라 왕릉 출토 금목걸이는 머나먼 로마 세계의 관습이 러시아 남부의 로마 문화권을 거쳐 신라까지 전달되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황남대총에서 로마의 금사슬과 팔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플리니우스 박물지는 서기 79년에 고대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백과사전으로 유럽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원전으로 서기 79년부터 17세기까지 장장 1,700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플리니우스는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을 지켜보다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사진 1: 봉수형 유리병(황남대총 남분), 국보 193호, 신라 5세기

이병은 그리스에서 유래한 오이노코에(Oinochoe) 병의 하나이다. 시리아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이 병의 주둥이 부분은 나팔잎 모양이며, 중국에 전해지면서 주둥이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봉수병’이라고 불려졌다. 주둥이와 목에 파란색 띠를 붙였는데, 이러한 장식 기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파란색 손잡이를 금실로 감아 보강한 것으로 보아 금보다는 유리를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금속그릇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사진 2: 시리아에서 4세기 경에 제작된 유리병으로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봉수형 유리병과 유사한 모양이다.

사진 3: 황남대총, 황남대총 반지

황남대총 금관은 왕비가 주인이고 왕은 자격미달로 은관을 쓰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왕비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위치에 오른손에 5개의 반지를 끼고 왼손에는 6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실이다.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양손에 많은 반지를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신라에는 로마의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 동창회 제28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6월 21일 (금요일)	6월 22일 (토요일)	6월 23일 (일요일)
1:00 pm - 2:00 pm 등록 접수	6:30 am - 8:30 am 조찬	8:00 am - 10:00 am 지부 회장단 모임
2:00 pm - 3:20 pm 이홍규 교수	9:00 am - 12: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10:00 am - 4:00 pm West point & Hudson River 관광
3:40 pm - 5:00 pm 장태환 교수	12:00 pm - 1:00 pm 오찬	
5:30 pm - 9:30 pm 환영만찬 기조 연설 조태열 UN 대사	12:30 pm - 4:00 pm Spouse program (City tour, MoMA 방문)	
	1:00 pm - 4: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8:30 pm - 10:00 pm 축하음악회 (카네기홀)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 이홍규 교수
파차와 캠프 미주최초의 한인 타운, 장태환 교수 UC Riverside
기조연설 (환영 만찬 중):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조태열 UN 대사)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8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9년 6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호텔 예약 안내

* 담당: 최용렬 (201-582-5214)

*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하시고, group code에 F71
을 타입하시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에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
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김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
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
후, 드라이버가 전화로 연락 줌

문의

신응남, 646-523-9606 / 허유선, 973-865-1749
문현호, 646-770-7028

제28차 평의원회의, New York, Tour Guide

6월 22일, 토요일, 12:30 pm ~ 4:00 pm, Spouse Tour, MOMA
MOMA, Manhattan 방문, 입장료: \$30 (개별 부담), 25인승 버스 (선착순 등록)



MoMA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https://www.moma.org/>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is an art museum located in Midtown Manhattan, New York City, on 53rd Street between Fifth and Sixth Avenues.

MoMA plays a major role in developing and collecting modernist art, and is often identified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museums of modern art in the world. MoMA's collection offers an overview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cluding works of architecture and design, drawing,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prints, illustrated books and artist's books, film, and electronic media."
<https://en.wikipedia.org>

6월 23일, 일요일, 10:00 am ~ 4:00 pm, Hudson River & Westpoint

Hudson River & Westpoint 방문 / Thylor Hotel Famous Lunch Buffet @ 1:30 pm
• 평의원 등록시, \$50/1인 (입장료, 식사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55인승 대형버스 (선착순 등록)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USMA), also known as West Point, Army, Army West Point, The Academy, or simply The Point, is a four-year federal service academy in West Point, New York." <https://en.wikipedia.org>

"The Thayer Hotel is located 50 miles north of New York City on the banks of the Hudson River at 674 Thayer Road in West Point, New York on the campu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https://en.wikipedi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

Saturday, June 22nd 2019 at 8:30 pm
Zankel Hall at Carnegie Hall
7th Ave. between 56th and 57th St. New York, NY 10019

TICKET 예매 : Carnegiehall.org | CarnegieCharge 212.247.7800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문의 : 718.463.3131 / \$100 \$50 \$40 \$30

테너 : 문현호 바리톤 : 한경진 테너 : 장주훈 테너 : 노영환

Soprano: Mi Ja Kang Philharmonia Boston / Soloists of New England

주최 : 서울대 미주동창회 후원 :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뉴욕지역 골든클럽

협찬 : SeAH Steel USA LIC HOTEL Peter Shin Law Firm Baby World Trading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NY RADIO KOREA 뉴욕라디오코리아 Hansu Enterprises 백승원 위장내과 KUKBO

Celebration Concert for 28th Delegate Assembly of SNUAA-USA
Prese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장용복 (공대 58)

<시인과 시 이야기>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 1770-1850)

1930년 경, 캔자스주의 어느 시골, 고등학교 졸업 반의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다. 첫 사랑으로 너무 행복한 이들은 소년이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오래 전부터 약속한 사이이다. 그러나 소년은 키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어느 험거운 소녀를 사귀게 된다. 소녀는 소년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찾아가서 온 몸을 내 갖킨다. 그러나 소년은 너같이 청순한 애가 왜 이리나 프라이드 없느냐고 꾸짖는다. 소녀는 정신병 요양소에 들어가고 소년은 아버지 뜻에 따라 예일 대학교로 떠난다.

몇 년이 지난다. 소년은 대학교 다니면서 식당 웨이트리스와 사귀며 재미없는 공부를 하다가 퇴학당하고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해 자살을 하자 아버지의 농장으로 돌아온다. 소녀는 요양소에서 의과 대학생을 사귀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옛 사랑을 잊지 못해 친구들과 같이 소년을 찾아간다. 이제는 청년이 된 그 소년은 식당 웨이트리스와 결혼해서 아이 아버지가 되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행복해?" 소녀가 묻는 말에 소년은: "그런 것 같애. 그런데 그런 생각 별로 안해;" "나 내 달에 결혼할꺼야;" "잘됐구나. 행복하기 바래;" "나도 행복같은 거 생각 안해;" "그래 주어지는데로 살아야지 (You gotta take what comes);" "잘있어."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아직도 사랑하냐고 묻는다. 이제는 성인이 된 소녀는 워즈워스 (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초원의 빛>을 읊는다.

<초원의 빛> Splendor in the Grass

한때 그처럼 찬란했던 광채가 이제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초원의 빛이오 꽃의 영광이었던 그 시간을 그 어떤 것도 되 불러올 수 없다 하더라도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 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그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본원적인 공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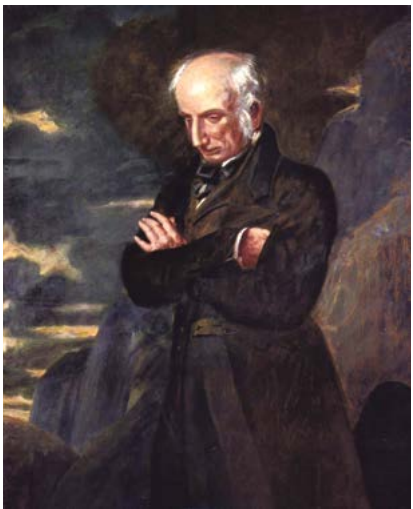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ing been must ever be;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솟아나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에서;
죽음 너머를 보는 신앙에서
그리고 철학적 정신을 가져다주는 세월에서

In the soothing thoughts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In the faith that looks through death,
In y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

<초원의 빛>은 11 聯 204 行으로 되어 있는 <불멸의 찬가> (Immortality Ode)에 나온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본능, 순진, 탐험으로 되어 있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

Portrait of William Wordsworth by Benjamin Robert Haydon (National Portrait Gallery), <https://en.wikipedia.org>

볼 수 있다는 제9연 다음에 나온다. 비록 자연과 경험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지라도 공감과 기억과 성숙한 의식, 즉 지혜로운 정신을 얻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한다. 마지막 11 연에서는, 이리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해 준다. 그래서 바람에 불리우는 미천한 꽃 한 포기도 너무나 속 깊이 묻혀있던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고 환희의 감정을 쏟아 놓고 있다.

다음으로, 워즈워스의 가장 유명한 <수선화>를 소개한다. 어느 비오는 날 여동생과 시골 길을 걷다가 착상한 시이다.

<수선화> The Daffodills 이재호 역

하늘 높이 골작과 산 위를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다
문득 나는 보았네, 수없이
많은 황금빛 수선화가
호숫가 나무 아래서
미풍에 한들한들 춤추는 것을.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은하수에서 빛나며
반짝거리는 별들처럼 푸욱 연달아,
수선화들은 호만의 가장자리 따라
끝없이 열지어 뻗쳐 있었네.
무수한 수선화들이, 나는 한눈에 보았네,
머리를 까딱이며 흥겨이 춤추는 것을.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수선화 옆에 호수 물도 춤췄으나, 수선화들은 환희에 있어 반짝거리는 물결을 이겼었다. 이렇게 즐거운 동무 속에 시인이 안 유쾌할 수 있으랴 나는 보고 또 보았다, 그러나 이 광경이 어떤 값진 것 내게 가져왔는지 미처 생각 못했더니,

금 빛 수선화는 화자의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준다. 뿐만 아니라, 후일 고독에 잠길 때마다 춤추는 수선화를 그려보면 모든 고독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춤추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춤춘다는 단어가 각 연마다 나와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강조시키고 있다.

直喻(as a cloud) 隱喻(inward eye) 擬人化(daffodils)를 많이 썼고 脚韻은 각 聯이 ababcc 이고 아래와 같이 韻口步로 되어있다:

I wan / dered lone / ly as / a cloud
That floats / on high / o'er vales / and hills.

워즈워스와 두살 아래인 여동생 도로시는 특별한 사이였다. 워즈워스가 8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면서 오누이는 갈라져 따로 살았다. 9년 후 오누이가 다시 만났을 때 도로시는 15살의 오졌한 숙녀가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다. 오빠의 체취를 느끼려고 오빠가 없을 때 오빠의 침대에 눕기도 하였고 오빠가 먹던 사과를 끝까지 먹기도 하였다.

워즈워스가 25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작은 오두막 집에 이주하여 같이 살게 되었고, 워즈워스가 대학교 친구와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다섯을 낳았어도,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살았다.

도로시는 처음 오두막 집에서 둘이 같이 살던 2년 반 동안이 자신의 생애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한다. 오빠가 결혼하고는 실연의 슬픔을 느꼈으나, 옛날에는 친구였고 지금은 오빠의 부인이 된 시누이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도로시는 오빠의 詩興의 대상이 되었고 詩作의 비서가 되었다. 여동생에게는 오빠가 삶의 목적이었고 오빠에게는 여동생이 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다. 오누이는 영혼의 동반자(soul mate)였다. 오누이 관계라기 보다는 부부 관계에 더 가까웠다. 혹자는 근친간의 불륜이라고도 보지만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불륜은 없었으리라고 한다.

워즈워스는 여러 나라에서 살았다. 한 때는 영국은 물론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걸어다니다 자연을 즐겼다. 프랑스 혁명 때에는 프랑스에 살면서 혁명군의 이념을 숭상하였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프랑스의 스파이라고 주목을 받기까지 하였다. 프랑스에 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해서 아이까지 만들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국교가 악화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국교가 정상화 된 후에 여동생과 프랑스로 가서 생활비를 마련해 주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독일에 가서도 살았다. 독일에서는 여동생과 시인 코울리지(Coleridge) 부부와 같이 살았다. 새로 받은 유산으로 넉넉히 살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코울리지와 같이 시집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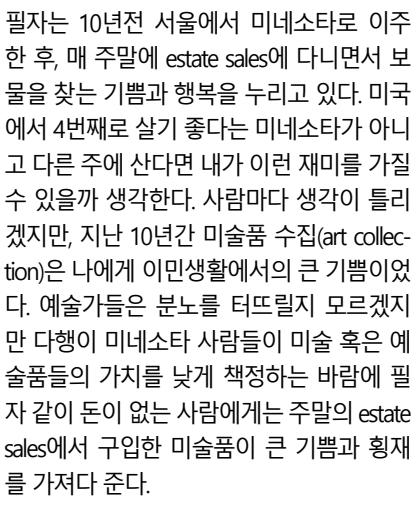
73세가 되었을 때 계관시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사양을 했지만 영국 수상이 재차 권하자 마음을 바꾸었다. 7년 동안 계관시인으로 있으면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명예를 즐기다가 세상을 떠났다.



송세진 (치대 78)

필자는 지금 한 젊은 미모의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다. 이순(耳順)의 나이에 아름답고 사랑스런 약150년전의 여인에게 갑자기 빠져들었다. 지난 주말에 Minneapolis의 허름한 집에서 구입한 oil portrait가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유화 초상에서 painter's signature는 앞으로 보고 뒤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혹시 적외선 사진이나 x-ray로 분석하면 화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면 어떠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소유하고 사랑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가? 사랑을 떠나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 나름대로 이 그림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본다. 낡은 액자 뒤에 겨우 붙어 있는 부스리진 종이 라벨에서 puzzle을 맞추며 이 그림의 역사를 추적한다. 최소한 이 그림이 뉴욕 Manhattan에서 미네소타로 건너 온 것은 확실하다. 그림은 95th Street 근처의 709 Amsterdam Avenue, New York, NY에서 framing 되었다. (Oil painting on canvas. Size: 16" x 20").

필자는 10년전 서울에서 미네소타로 이주한 후, 매 주말에 estate sales에 다니면서 보물을 찾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미국에서 4번째로 살기 좋다는 미네소타가 아니고 다른 주에 산다면 내가 이런 재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지난 10년간 미술품 수집(art collection)은 나에게 이만생활에서의 큰 기쁨이었다. 예술가들은 분노를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미네소타 사람들이 미술 혹은 예술품들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필자 같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말의 estate sales에서 구입한 미술품이 큰 기쁨과 황재를 가져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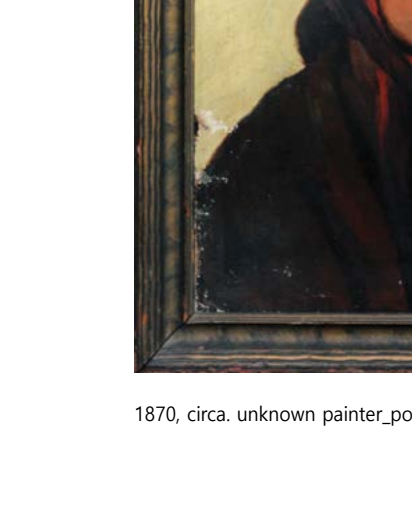
2003. Kim Jae-Im, Spring, flowers and children

필자는 예전에 서울에 살 때도 미술 전시회에 가서 종종 그림을 구입하고 했다. 서울의 물가는 높아서 주로 print를 샀지만 무명 화가의 조그마한 유화를 100만원(\$1,000)에, 유명한 여류화가의 그림을 600만원(\$6,000)에 구입한 적도 있다. Painting 재료는 다양하겠지만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유화는 수채화나 파스텔화가 아닌, 유화나 유화와 유사한 그림을 말한다. 방금 이 여류 화가는 필자가 속한 어떤 그룹의 원로화가인데, 필자가 병원장으로 임명된, 장애인을 위한 서울의 어떤

Art collection의 환희

떤 신축 치과병원에 걸겠다고 하니까 2005년에 필자에게 싸게 판 것이다. 같은 그룹의 한 여선배는 이 그림을 보고 무척 부러워했다. 어떻게 대가의 대형 그림을 그렇게 싸게 샀느냐는 것이다. 이 "봄, 꽃, 어린이"(Spring, Flowers, and Children. Size: 3.2m x 2.2m. 2003년) 그림은 무척 아름답다. 미네소타의 우리 집이나 치과에 걸려고 해도 너무 커서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original painting은 attic에 넣어두고 사진으로만 거실에 전시하

고 있다. 아마 서울에서, 필자가 사랑에 빠진 이 아름다운 여인의 antique portrait를 구입했다면 최소 \$1,000, 많게는 \$5,000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판매 미술품 가격이 낮은 미네소타에 사는 덕분에 필자는 저가로 이 초상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Estate sale에서의 지출은 \$250 per item, \$250 total per week 으로 필자 나름대로의 지출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초상화의 가격은 \$250 미만으로 추정하면 된다.



1870, circa. unknown painter, portrait of a lady

Estate sale에서의 진풍경: Estate sale은 보통 집주인이 하늘나라에 가게되면 일어난다. 전문회사나 자녀들이 집을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판매한다. 후계 자녀가 없으면 이 estate sale은 buyer들에게 더 큰 기쁨과 황재의 기회가 된다. 자녀들이 좋은 물건을 미리 걸러내는 과정이 없이 집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2-3일 내에 모두 판매되기 때문이다. Estatesales.net에 그 주간에는 sale 공고와 함께 주요 사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buyer 들은 며칠전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한다. 자신의 관심 품목이 사진에 보이면 손실같이 당일날 아침 일찍 그리로 달려간다. 보통 판매개시 시각에 10- 20명의 사람들이 와서 어서 문이 열리기만 바라고 집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특이하게 좋은 sale에는 100명 혹은 150명이 일찍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아무리 큰 집도 security or safety reason으로 처음에는 30명 정도만 입장시킨다. 그 다음 사람이 입장하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Buyer들의 눈에는 보물을 찾아 나서서 희망이 넘친다. 문을 열면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판매 관리자들이 가끔 사고 방지를 위해 통제도 한다. 집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신이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눈에 불을 밝히고 buyer들은 부산히 움직인다. 일반 쇼핑과는 틀리게, 돈을 지불하고 집을 나서서 buyer들의 표정은 특이하다.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자신이 보물을 찾았다는 만족감이 대단하다.

미네소타 Twin Cities에서의 estate sale은 특

이런 점이 있다. 일반 주택에서도 많은 sale이 일어나지만, 호수가 많아서 호수 주변의 대저택에서도 일년내내 sale이 일어난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언의 협박을 주는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의 에티켓을 가지면 눈총을 받지않고 누구나 자유로이 sale에 참여할 수 있다. 필자는 미네소타에 부자 친구가 없어서 호수 주변의 대저택에 가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년내내 이런 estate sale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자유로이 가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인의 문화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할 수 있으며, 현재부터 약 150년전까지의 미국 주택 구조를 공부할 수 있다. 창 넘어 잔잔히 파도치는 미네소타의 아름다운 호수를, 아름다운 단풍을, 때로는 하얀 눈 덮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다.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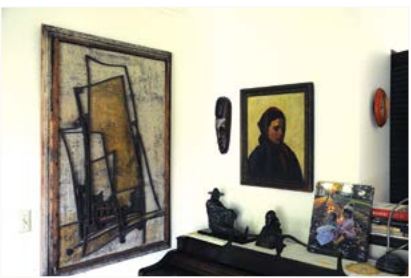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2013년의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이다. St.

painting한 antique artwork (size: 32" x 50". 1870년)인데, 첫눈에 반해 버렸다.



왼쪽 작품, 1870. Dougall, panel art,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필자는 2012년 1월에, 미네소타에 와서 처음으로 \$200이던 거액의 돈을 estate sale에 썼다. Wayzata의 Grays Bay 호수지역에서의 antique art sale에서다. 미술가 Dougall이 용접한 metal art를 나무 panel에 고정시키고

2013년의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이다. St.

Paul의 2층 집인데, 나는 10분정도 늦게 도착했다. 1, 2차로 50명 정도 사람들이 입장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니 사람들이 더 와서 내 뒤에 50명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린다. 집에는 각종 미술품들과 악기들, 품위있는 수 많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이 조금 좁아서 이방 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별로 쉽지 않았다. 보통 때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미술품을 찾아서 shopping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날은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 일찍 들어 올 수 있도록 책장에 놓인 특이한 조각품 하나만 들고 서둘러 나왔다.



1977. Bruce Stillman_kinetic sculpture

집에 돌아와서 \$10에 구입한, 달랑달랑 움직이는 그 metal sculpture를 분석해 보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미네소타가 낳은 유명한 Bruce Stillman의 Kinetic sculpture (1977년)이다. 크기는 작지만 지금 우리집의 작은 보물이다. 우리집 손님들은 식탁 옆 책장에 놓인 그 조각품이 그네처럼 움직이도록 한쪽을 살짝 눌러 보기도 한다.

Eastate sale에서 필자가 collect 하는 것은 violins, jewelry, copper arts등 다양하지만 가장 관심분야는 oil paintings 과 portrait photographs인데, portrait는 특히 평생의 관심사이다. 필자가 모교 치과대학을 1984년에 졸업하고 나서 facial beauty를 많이 다루는 orthodontics residency training을 받고서 바로 중앙대학교에서 미술학 석사과정으로 photography를 공부한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얼굴은 내게 항상 신비의 탐구 영역이다. 사람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묘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8년간 미네소타의 오래된 흑백사진 portrait를 상당히 수집했다. 개개 사진도 구입하지만 옛날 앨범에 통째로 담긴 사진을 많이 구입했다. 이 시점에서 이 collection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책을 환권 발간해도 충분한 분량이다. 미네소타의 각지역에서 100년에서 150년 쯤 전에 촬영된 사진이다. 대부분이 미네소타의 Twin Cities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그 외의 소도시에 산재한 사진관들에서 온 것도 많다. 시카고 등지에서 찍어온 사진앨범도 있다. 필자는 미네소타에서 짧은 10년의 기간이지만 치과의사로 동서남북 여러지역으로 옮겨 일하면서 미네소타 전역의 치과환자를 진료했다는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portrait들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내

dental chair에 앉았던 환자나 내가 근무한 치과를 다녀간 patient guardian으로 연상된다.

Portrait와 관련하여 내겐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책을 발간하고 전시회를 하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조선의 명성왕후 초상을 흑백사진에서 color oil portrait로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정치적으로,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명성왕후 portrait 가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과 우아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약130년전 1893년도의 한국인 명성왕후 portrait를 지난주에 만난 미국여성의 portrait 이상으로 아름다운 color oil portrait로 재현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이 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희에 대한 skille이 아직 없어서, 아마 Andy Warhol이 사용한 그림방식을 따라서 연젠가 하게될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동문 화가 중에서는 이러한 재현작업을 쉽게 해낼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대한영이다. 필자에게 \$250으로 32" x 50" 정도 크기로 그려서 팔거나 선물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아마 최소 \$25,000는 달라고 하시겠지요?

Portrait 이야기가 나왔으니 명성왕후 초상화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명성왕후는 사진을남긴게 거의 없다. 아마 천연두 후유증으로 생긴 얼굴의 공포 때문에 명성왕후는 사진찍기를 꺼렸을 것이다. 그래서 궁궐에 난입해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인 자객들조차도 명성왕후의 얼굴을 몰라서 여인들에게 누가queen이나고 몰았다. 명성왕후의 얼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필자는 1893년에 프랑스인 A.B. de Guerville이 찍은 사진 "MIN, REINE DE COREE"가 명성왕후라고 본다.



1893. A.B. de Guerville_ Queen Min

대원군이 초상화 사진을 찍고나서 같은 자리에서 찍은 이 사진이 대원군의 첩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국의 이 collection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책을 환권 발간해도 충분한 분량이다. 미네소타의 각지역에서 100년에서 150년 쯤 전에 촬영된 사진이다. 대부분이 미네소타의 Twin Cities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그 외의 소도시에 산재한 사진관들에서 온 것도 많다. 시카고 등지에서 찍어온 사진앨범도 있다. 필자는 미네소타에서 짧은 10년의 기간이지만 치과의사로 동서남북 여러지역으로 옮겨 일하면서 미네소타 전역의 치과환자를 진료했다는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portrait들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내

은 민비가 훨씬 어려서 왕비가 되었을 때의 옛된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다.

Art collection에 관해서는 J. Paul Getty의 책 "The joys of Collecting" (1965. Hawthorn Books)에 있는 "Madonna of Loreto"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8년 7월 20일이였다. 미국인 Getty는 영국 런던의 Sotheby 경매에 참가했다. 경매를 알리는 헤드라인: "Sotheby's Sale of Celebrated Paintings comprising the Collections of the Royal House of France removed from Schloss Frohsdorf, Lower Austria and now sold by order of H.R.H. Princess Beatrix de Bourbon-Massimo"에 심각한 수집가들은 침을 삼키고 있었다. Sale 전날 Getty는 경매에 나온 6개의 그림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었는데, bidding을 하기위해, 그중에서도 루이 14세 초상화 (LOUIS XIV, 114" x 64", canvas)와 Madonna of Loreto (37" x 35-7/8", panel)에 대한 expert advice를 받았다.



1701. Louis XIV of France

루이 14세 초상화는 Rigaud의 작품으로, Madonna of Loreto는 "after-Raphael" 작품으로 경매 list에 나와 있었다. 이 sale에 수많은 museum expert들과 런던과 파리에서의 거의 모든 art dealer 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경매에서 경쟁이 치열할거로 예상되었다. 경매에서 Getty는 루이14세 초상화는 145 파운드 (\$725)에 낙찰 받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Madonna of Loreto 이야기다.

영국의 유명한 초상화가 Gerald Brockhurst는 경매전날에, 패널로 된 Madonna of Loreto는 단순한 "after-Raphael" 그림은 아닐거라고 하면서 Getty에게 사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림속 Virgin의 오른팔이 대가의 터치가 아닌게 흠이라고 말했다.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이 패널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라파엘의 유명한 작품Madonna of Loreto의 copy라고 생각했다. 경매는 10 파운드(\$10)에서 시작되었는데, 40파운드(\$200)로 Getty에게 낙찰되었다. 루이 14세 초상화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after-Raphael" panel을 구입한후 Getty는 이 작품속에 계속 빠져들었다. 25년이 지나서 이 작품은 영국의 Sutton Place로 보내졌다. Original painting에 마모도 줄 있고 새로 칠한 흔적도 있고 패널을 덮고 있는 니스도 변색되었다. 그림이 도착한후 며칠 지나 런던의 유명한 art dealer이자 expert in Italian

Renaissance paintings인 Colin Agnew가 방문했다. 그는 이 작품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Getty가 이 작품이 라파엘이 그린 것 같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누가 Paul (Paul Getty)에게 "이런 것"을 팔았느냐"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이 그림 청소 좀 해야겠다고 충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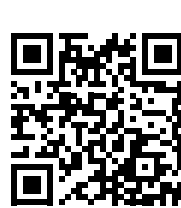
1509. Raphaël_La_Madone de Lorette

Getty는 청소를 위해 이 패널을 Colin에게 보냈다. 청소를 하고 나니 그림의 가치가 달라져 보였다. 이 시점에서 Colin은 Madonna of Loreto는 대가 라파엘이 직접 손으로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후 여러 다른 대가들의 적외선 사진, 엑스레이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작품은 라파엘의 작품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1965년 2월에 이 작품은 라파엘의 불후의 명작인 Aldobrandini Madonna와 함께 런던 National Gallery의 Raphael Room에 전시되었다. 이 시점에 이 작품의 가치는 이루 말할 표현할 수 없지만 본래 구입한 가격의 1만 배의 가격에Getty는 보험을 들었다.

J. Paul Getty는 자신의 책에서, 어떤 사람이든 collector가 될 수 있고 어떤 나이에서든지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art collection을 시작하는데 대가가 될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이나 돈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수집가들은 흔하게 스릴을 경험하고 이러한 승리를 음미하고 즐긴다고 한다. Getty의 말이 어느정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모교 치과대학 동기들과 비교하면 가장 나쁜 나는 10년전 미네소타에 이민 오자마자 주말의 취미로 이것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아직도 미네소타의 구성구석으로 보물을 찾아 헤맨다. 지난주말에 Minneapolis의 허름한 집에서 찾은 150년전의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를 보며, 이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원택 (의대 66)

진·선·미

윤리학(倫理學: ethics)

공자는 <논어>에서 윤리의 기본을 인(仁)이라했다. 인이란 마음이 니그르다는 어질仁, 남을 동정할 수 있는 착할 仁,으로 사람 사변에 두二자를 써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잘해 주라는 뜻으로 서양에서 얘기하는 선(善: good)에 버금가는 말이다.

공자의 뒤를 이은 맹자도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강조한 사단론(四端論: 네 가지 진실)에서,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인(仁), 자신의 결점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오점을 미워하는 의(義),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예(禮), 잘 잘못을 가릴 수 있는 지(智)를 강조했다.

장자는 심지어 도덕에게도 오덕(五德)이 있어야 한다고 했나니 이는 첫째 창고를 열심히 살려라(성: 聖), 둘째 남보다 먼저 들어가라(勇), 셋째 나를 때는 제일 나중에 나오라(義), 넷째 흠친 물건의 가치를 잘 평가하며(知), 다섯째 동료들에게 끌고루 나누어 주어야(仁) 한다는 일이다. 서양의 플라톤은 이성인 최고의 덕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의 산물이고 덕은 중용에서 구하며 중용은 용기, 절제, 정제, 정에서 나온다'고 했다. 동양의 윤리학은 정(情)적이고 서양의 윤리학은 지(知)적이다.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고 내려오다 죽을 확률이 100%라고해도 막무가내로 올라가려 하는데 이를 명예욕이라 할지 개척정신이라 할지 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 해야 할 지 아리송하다. UN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중동에 돈 벌러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가려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간다고 한다. 과연 돈이 중요한가, 물이 중요한가, 생각해 볼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범인(凡人)들에게는 너무 가혹 한 '판결'일지 모르지만 '검토되지 않은 인생은 가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 않은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서두에서 작가는 상인이고 작품은 상품이라고 했다. 좋은 작품이란 '가치' 있는 물건'일진데 과연 어떤 물건(작품)이 값이 나갈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넘게 윤리학 내지는 가치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면 '검토되지 않은 작품은 값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1과 가치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지말아야 하고 가족, 친구, 국가, 인류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리적 지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인식이 잘못 일 수도 있으며 만약 1%라도

잘못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는 회의론(skepticism)도 있다. 이름도 요상한 고대 그리스 의 의사 철학자 섹스투스(Sextus Empiricus)는 성교시 사정을 않는 것에서 감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사물을 깊이 믿지 않는 것이(즉 정을 안주는 것이) 평화와 안녕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에이머(A. J. Ayer)는 세상에 윤리적인 진술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아유와 아우성 또는 신음과 투덜거림'뿐이라는 감동주의(emotivism)를 주장했다. 만약 내가 '그 돈을 훔친 행동은 잘못이다.했을 때 이는 단지 '네가 그 돈을 훔쳤구나'란 말을 억양을 올리거나 '?! 같은 문장부호를 써서 나의 불찬성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도덕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는가 모르는가? 어떻게 아는가?'를 따지는 학문을 지식론(epistemology)이라 하며 플라톤은 본질적이며 확실한 개념에 입각한 윤리적 감수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어떤 특수한 지각이 어떤 특수한 영역에 미치는 실형적 지식을 의미한다. 한편 유클리드(Euclid)는 '자명한' 이치에서 이끌어낸 수학적 지식을 중요시했으나 유클리드 기하학도 따지고 보면 그리 자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상상속의 개념이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선이나 점을 빼고는 그 누구도 정확한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과학과 수학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아래 이론을 전개할 뿐으로 라울(John Rawls)은 윤리에서도 '우리는 어떤 특정사례를 일반원칙에 의해 판단할(연역법) 뿐더러 일반원칙을 특정사례에 준해 끌어낸다.(귀납법)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리학의 영역은 도덕현상을 다루는 기술(記述: descriptive)윤리학, 도덕의 본질을 추구하는 규범(規範: normative)윤리학, 인생의 가치를 따지는 가치(價値: value) 윤리학, 주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생태(生態: eco)윤리학 등을 포함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fact)이 아니라 가치 (value)이다. 무엇이 삶을 보람있게 하는가. 무엇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인가 아니면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가, 인생이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은 어쩌란 말인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사건이나 사물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보고만 해서는 의미가 적다. 우리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조작해서 우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도록 글을

쓴다. 글의 목표는 결국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삶을 검토하는 일이 철학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윤리학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학문을 가치학 이라 한다. 가치에는 도덕적, 지적, 미적, 요소 등이 포함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그의 아들 니코마쿠스가 나중에 편집한 <Nicomachean Ethics>에서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행복보다는 안녕 또는 번영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함)를 가치의 지상목표로 삼았다.

반면에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황제, 네로의 가정교사, 세네카(Lucius Seneca), 노예였던 에피크테투스(Epictetus)등 극기주의자(stoics)들은 인간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역경의 화살에 둔감해지는 성품을 개발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어쩌다가 다가오는 행복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되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한심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도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는 사물의 가치 즉 무엇이 중요한가를 전혀 모르면서도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인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경망(neural net)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과학적 머리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철학적 머리이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싸여있고 국토의 3/4이 산악이다: 라면 그래서 어쩐다는 것인가(?) -so what- 이란 질문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식량난에 허덕여 왔다: 거나'농업보다는 수산업을 더 진흥해야 한다: 라는 댓값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의 지형을 살살이 알고 있다 해도 그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려면 신이 내려준 땅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마다 재질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모두가 누구나 최선의 삶(the highest good life)을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과연 최선의 삶은 무엇인가.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존경하는 삶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다. 빌 게이츠(William Gates)나 빌 클린턴(William Clinton)은 전자에 속하고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나 모한다스 간디(Mohandas Gandhi)는 후자에 속할진 데 사람에 따라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상적인 삶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같은 사람 말이다.

글쓰기에 무슨 가치학이 소용되었느냐 하겠으나 작가는 누구든 최상의 글을 쓰고 싶어 한다. 글도 사실의 묘사에만 그친다면 아무의미도 없다. 글은 사실이나 허구에서 가치를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철학은 삶의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문학은 삶의 가치를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좋은 글은 철학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는가.

2과 윤리의 네 기둥

윤리의 기초를 설명하는 학설에는 선(善: good)에 입각한 학설과 의(義: right)에 의한 학설이 있다. 세상에선 분명히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일은 좋은 행동이고 좋은 행동을 지향하는 의지는 올바른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기가 좋아도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나쁜 이유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선행에 기초를 둔 학설이 공리주의(功利주의: utilitarianism)로서 이는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영국헌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영국정부에서는 대중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정신병자들을 격리, 감금시켜 버렸으나 이를 올바른 일이라 하기에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누가복음에도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라고 하지 않았던가.

반면 의무론(deontology)의 선구자 칸트(Immanuel Kant)는 '선한의지 없이는 어떤 것도 선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동기를 중요시했다. 즉 윤리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한의지'의 중심에는 '의무가 버티고 있고 의무란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며 이와 같은 원칙은 지구상의 어디거나 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 않으면 부도덕한 것이라고 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따돌리려고 앞으로 십면 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지거나 독신하면서도 나는 기혼자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그는 단연코 안 된다고 했다. 암만 선한 의지에서 나왔다고 해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칸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독일의 케닉스버그(Königsberg)를 떠난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이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서 동네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춰 주는 강박신경증 환자였다. 그러나 그도 저 녁식탁에 여러 사람을 불러들여 담소와 해학을 즐겼나니 그리 쾌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즉 필자보다는 더 정상적이었던 말이다.

이와 같은 (칸트식) 부분별 강압성은 우선 그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윤리적이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식물인간이 된 부모의 생명연장기구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고통과 품위손상으로 부터의 해방일수도 있고 유산상속을 염두에 둔 결정일수도 있기 때문에 선한 의지와 옳은 행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윤리의 원칙은 '선·착이나' 의:義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고지식한 칸트도 나중에 쓴 <살친 이성비판>에서는 '내 마음을 채워주는 두 가지는 나날이 새롭고, 신기하고, 경이롭게 내 위에서 빛나는 천국과 그것이 나에게 반사되어 나날이 그 빈도와 심도를 더해가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도덕률이다'라고 말했다. 쉽게 얘기하면 '행복은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란 뜻이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유다이 모니아'라면 기독교에서는 박애, 불교에서는 자비, 유교에서는 질서, 힌두교에서는 윤회, 이슬람교에서는 공존을 통해 자기만족과 세계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철학은 삶의 지혜를 따지는 학문이며 종교는 존재의 원리를 터득하는 방편이다. 철학자는 선각자이고 교주는 예언자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를 분리하려고 또는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종교는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옳다는 것은 신이 인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옳기 때문에 신이 인정한 것인가. 만약 신은 옳기 때문에 명령한다고 하면 올바른 일이란 신보다 더 우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신이 명령했기에 옳다면 신에 대한 존경심이 반감되는 한편 가치를 따질 필요도 없다. 가치(인간)는 존재할 수 없고 사실(신)만 일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신앙은 합리적인가? 합리에는 증거에 의한 것과 실용에 의한 것이 있는데 종교적인 합리는 후자에 속한다. 종교가 실용적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러셀(Bertrand Russell)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것 중에 미신과 종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 종교가 이룩한 업적들도 신의 명령보다는 '사회공동체로서의 지원'에 더 힘입은 바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빼고 윤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우리가 윤리 하면 유교의 삼강오륜이나 기독교의 십계명을 생각한다. 이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prima facie) 도리라고 해서 그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이(sans phrase)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거의 동시대에, 서양의 칸트가 비견할 만한 중국의 성리학자 주자(朱熹)는 '이기 이원설(理氣 二元說)을 주장하여 도리(道: 바른 길, 理: 원칙)가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칸트의 '의무와 같은 뜻이나 서양에서는 인간(humanity)의 의지(인륜)에 중점을 두고 동양에서는 우주(cosmos)의 법칙(천륜)에 더 중점을 둔 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명한 의무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도 있나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비판하는 아버지를 당에 고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는 불쌍한 민생들도 있다고 한다. 이때 군위신강(君爲臣綱)이 더 중요한가, 부위자강(父爲子綱)이 더 중요한가를 저울질해야 할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치안 윤리>에서 '결정은 지각(percep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와같은 윤리적 지각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바탕을 둔, 행동을위한 통찰력으로 이를 '실용적 지혜'라고 한다.

세상에는 자신의 아버를 죽이고서라도 입신양명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버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조에서는 '군신유의'를 '부자유친'보다 먼저 나열했고 불교의 십계(十戒)는 '살생하지 말 것' 기독교의 십계(十誡)는 '타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된다. 불교의 역사는 도피의 연속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종교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즉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믿음(信: faith)이 없으면 선

(善)과 의(義)가 무슨 소용인가.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각, 지식, 지혜에 앞서 모든 윤리의 기초의 기초가 되나니 과연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 지이다'이다. 칸트는 신의 의지를 최고의 선이라 했고 헤겔(G.W. Friedch Hegel)은 종교는 곧 예술이라고 했다.

윤리학에서는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다룬 흔적이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랑은 선의, 신(信)의 밑바닥에 깔려있고 또는 그 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도 있다. 암만 선과 의와 믿음에 이르러도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아마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은 문학의 몫으로 남겨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

생뉘찍베리(Antoine de Saint-Exupery)는 <인간의대지>에서 안데스산맥의 눈밭판에 추락한 비행사가 어머니와 아내 생각을 하면서 한결음씩 전진한 결과 목숨을 구한 장면을 묘사 했는데 이는 여인의 사랑이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끌어낸 예이다.

3과 도덕적 가치

인생은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므로 우리 모두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면 아마도 그것을 얻는 길이 생각보다 더 수월할 지도 모른다.

가치를 본질적인 것, 도구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본질적인 것으로는 건강, 자유, 사랑, 기쁨, 창조력 등이 있고 도구적인 것으로는 돈, 명예, 친구, 여자, 지식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건강이나 자유는 다른 모든 가치에 선행할 것이고 도구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불과할 것이다. 과연 당신의 자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건강과 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학자본일 것이다. 하긴 이타심, 상현(相憐: empathy), 용기, 희생, 인간의 존엄성 같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도 있다고 하더라도서.

아,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건강하지 않은 목숨도 목숨이고 목숨은 돈과도 바꿀 수가 없다. 삶을 연구하는 것도, 죽음을 연구하는 것도 철학의 몫이다.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고 한다. 생명은 그야말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priceless) 보배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한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죽는 편이 더 나아서 죽는다고 하나 세

상에 예수님 빼고 죽어본 사람이 없고 죽음을 이란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므로 체험이 존재하는 삶과 비교할 수 없다.

BC 300년경 에피쿠로스(Epicurus)는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BC. 50년경에 루크레티우스(Lucretius)는 '영혼은 없어지거나

안 없어진다. 만약 영혼이 없어지지 않으면 죽음이 아니므로 두려울 것이 없고 영혼이 없어진다면 죽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밤중에 무서운 산길을 혼자 가면서 '아, 무섭지 않다. 아, 무섭지 않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죽음 뒤에 찾아올 일들을 아쉬워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이 그 누구도 출생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쉬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지만 이는 마치 강아지에게 처음부터 밥그릇을 주지 않았을 경우와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경우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모든 가치의 근원 이라거나 신의 선물이라는 본질적 가치 이외에도 당신의생명은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서 한사람의 죽음이 최소 6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며 자살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고 우울증이나 허탈감, 자괴감, 복수심 또는 자기 탐닉에 의한 병적행동이라고 한다.

타살의 경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타인의 기본품'이' 또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되었는가. 사형제도라는 것도 문제가 많다. 처벌을 정당화하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응보학설(retributive theory)이라고 해서 이는 '눈에는 눈' 식의 보복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억제학설(deterrence theory)이라고 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칸트는 살인자는 결과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해야 하며 만약에 법을 집행하지 않는 자도 공범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응보학설은 한국전쟁 때 남측이나 북측이나 후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서대문 형무소의 사형수들을 처치하고 간 일이 좋은 예로서 이는 감정이 앞선 근시안적이고 역행성(back-ward looking: 퇴보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드리기 힘든 면이 있다.

반면 실용주의에 뿌리를 둔 억제학설은 전적으로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진보적) 사고방식이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이치적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처벌이 도덕적,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강간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방지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처벌이 같은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군기를 잡으려고 전선에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병사를 총살시키는 일은 윤리 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본보기'로 처형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무어라 할 것인가.

따라서 처벌의 근거는 이상의 두 가지 학설을 융합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연 우리에게만 사랑은 죽일 권한이 있는가. 우리가 살인을 반대하면서도 살인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살인으로 표시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의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법은, 둘 다 동구나 의도는 동일하지만 '살인'과 '살인미수'를 매우 다르게 취급한다. 살인자는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고 살인 미수자는 3-4년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난다. 어떻게 보면 전자는 재수가 없었고 후자는 재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뽕뽕이 돌리거라면 칸트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그는 일찍이 윤리의 '고갱이'는 의지이고 의지는 결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도덕의 '고갱이'는 재수에 좌우될 수 없다고 했다.

은유법도 공부할 겸 칸트의 <도덕의 철학적 기초작업>이란 글의 일부를 보면 '선의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또는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함이 아니라 그의 지극 선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선한 것이다.. 만약 (의지와는 반대로) 불행한 일이 운명의 장난으로 일어났거나 의붓어미의 심정에서 나온 인색한 조건 때문에 일어났거나 간에 의지는 전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힘이 없는 것으로. (선한) 의지만 그 자신이 혼자 빛나는 보석처럼 영롱한 것이다.'라고 의지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의도란 타인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술집에서 언쟁을 하다가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밀쳤더니 계단으로 서리에 머리를 박혀 사람이 죽은 경우, 말과는 달리 죽일 의도는 없었을 것이고 어떤 엄마가 갓난애를 목욕시키다가 일층에 가서 전화를 받고 왔더니 애가 익사 한 경우' 과실치사라고 해서 살인과는 달리 취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경우는 우연과 선택이 빛은 불상사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는 이론에서 보다 직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겠으니 과연 이와 같은 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필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한테 <명심보감>을 배운 기억이 있고 필자의 이웃은 유태계 미국인으로 아버지가 여름철 나무그늘에 의자를 갖다놓고 10대의 두 아들에게 <탈무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가 직감이라 하는 것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라면 가치란 것도 결국 교육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문화와 가치를 논할 때 세 가지 상대성 이론이 있다. 첫째, 표현적 상대주의라고해서 문화에 따라 가치에 대한 원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윤리적(규범적) 상대주의라고 해서 한 행동이 어떤 문화에서는 옳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르다는 즉, 세상에는 만국에 공통된 도덕적 진실이 없다는 것이며 셋째, 처방적 상대주의라고 해서 문화적 가치의 차이를 알기알부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농공상 이라고 해서 상인을 천민으로 취급했고 서양에서도 '땅 놓고 돈 먹는' 영주(seignior)들이 '돈 놓고 돈 먹는' 상인들의 신분상승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중세 봉건주의에서는 악덕으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자본주의는 고리대금업(usury)에 의해 세워진 제도이다.

세상에는 채식주의자도 다소 있으나 거의



김반야

생명모성이란 무엇인가?

신기루 같은 생명모성

가도하는 마음· 거름 되어서 살리고 꽃피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것· 소통하는 것· 깊게 느끼는 것·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마음· 편안하고 고요한 근본 생명 그 자체· 누구나 다 꼭 빠지고 싶은 것·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마음· 눈물· 판단 없는 사랑· 기쁨의 물질· 지극한 정성· 고통과 아픔의 고향· 솟아오르는 새싹· 조화와 조율· 시인의 마음· 활짝 열린 가슴· 근원적인 삶· 희생· 쓸 수 있는 곳· 마음의 고향· 영원한 만남· 모든 이의 쉼터· 건강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 텅 빈 자리· 나와 내가 함께하는 곳· 한술밥· 내가 먼저 안는 것· 당신이 나임을 아는 것· 새롭게 깨어남· 우주의 동력· 천국· 시작과 마침· 조율· 내재되어 있는 근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다 주고 또 또 주고 싶은 마음· 생명수· 성소· 우주의 젖줄기· 조건 없는 사랑· 그대 앞에 떨림· 가장 멀리 가장 가까이· 대지의 어머니· 태초의 자궁· 나의 본적지· 나의 바탕

위에 나열된 내용들은 지난 8월 26, 27일 이들 동안 제주 초천읍 와산리 조이빌 리조트에서 있었던 생명모성 초동 워크숍에서 20여 명이 모여 생명모성과 관련된 직장을 생성하고 개념을 정리해본 결실이다. 이 워크숍은 '생명모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생명모성이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근원성이고, 여성-남성으로 이분화 되기 이전의 성품으로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동물계에서도 볼 수 있는, 잉태해서 보살피고 키우려는 생명의 충동이고 본능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모성은 선한 본능으로, 양심 본연의 자세로 드러나며, 정의롭고 진실되고 하늘을 공경하고 대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차원적인 심성의 기도를 내뿜고 있다. 인간의 생명모성은 존재적 기본 성품으로써 생명세계 전체와 조율하고 조화하고 통합을 이루기를 염원하는 최고의 영성이다. 병을 치유하는 힐링의 힘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기적의 힘이고, 충동적 욕구와 욕망을 자제하고 만사에 함부로 하지 않으며 삼가는 마음,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국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는 부모-열녀-열사의 마음이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라는 말처럼, 생명모성은 마치 자기 안에 있는지 몰랐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열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이나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생명모성의 결핍으로 메마른 속에서 시간과 노력과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생명모성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크게는 존재하면서 한편 작게는 그렇게 궁한 것일까?

신기루 같은 생명모성

우리 주위를 눈을 돌려 보자. 생명모성은 우리 가정을 이루는 근본 바탕인데, 한동안 보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삶 속에 있어 주어야 사랑의 발이 생기고 그 토양에서 새 생명이 싹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사이에 그 자태가 사라져 버린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시들시들해지고 병 증상을 보이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심할 경우는 자살에까지 치닫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 자살률이 세계 1위라 하니 사회가 이런 병을 앓고 있음이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생명모성 결핍의 원인을 뿌리영성의 단절에서 찾는다. 뿌리영성 과의 단절은 어머니와의 관계 고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면, 아들을 기다리는 독자의 가정에 둘째 딸로 태어난 나는 남동생에게 쫓린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자랐다. 엄마는 직장 때문에 항상 집을 비워칠 수 있는 부모-열녀-열사의 마음이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라는 말처럼, 생명모성은 마치 자기 안에 있는지 몰랐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열쇠이기도 하다.

그런 내가 지금 생명모성 일, 인간의 막힌 가슴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일이 나 개인의 성장 과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나를 나무랄 때 종종 "너는 영리한 애가 왜 그러지?"라고 애

기하시곤 했다. 저능아는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외부와 통하는 문이 닫힌 채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럴 때 내 가슴은 마비되고 머리 작동은 느리고 주에는 고착되고 저능아 같이 행동했다. 그러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해주면 상황이 나아지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

내 증상은 '약자폐증(mild autism)'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린 후에 비로소 약자폐증에 대해, 그리고 ASD(autistic spectrum disorder)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철학-감성치유-감성교육-영성교육 분야를 접목하면서 나는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인들이 자신의 약자폐증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사회적 차원

그때의 생생했던 경험은 나의 몸과 마음을 진동시키면서 깊숙이 파고들어갔고, 나의 감성을 활짝 열어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온전히 하나되는 강렬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이 체험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었고, 어린 마음속에 의식의 전화를 일으켰다. 이 세상이 무엇이 가능한 곳인지를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훗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해주었다. 존재의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그 느낌을 알 수 있었고, 그 체험을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재창조하기 위해 정진하게 했다.

생명모성의 길

그런한 전인적 체험의 결과로 나는 평생에 걸쳐 '통합된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다. 이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여기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학문 속에서 이런저런 분야를 탐사하며 동양철학, 서양철학, 영성학 등을 공부하고 교육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기존의 학문 안에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길로 들어서는 대신, 방향을 돌려 내면 치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라는 도구를 잘 갖추고 잘 쓰도록 하자. 분절되고 막혀 있고 성장에 중단된 내 내면의 상처 입은 부분들을 찾아서 치유하자. 그리고 통합하자. 평화를 이루자. 나 자신과 주위의 평화 통일. 이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되었다.

감성이란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정밀한 컴퓨터와 같아서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도 알지 못한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나를 사용해 살아가려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는가? 주어 진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근본 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놓인 여러 가 능력들을 뒤로 하고 감성치유와 자기계발의 길로 들어섰다.

내 자신의 감성 치유를 거쳐 그다음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었다. 그 관계를 소아와 엄마의 관계에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앞서 이런 분야가 없었고 길을 누가 놓은 사람이 없었던 탓에 새로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서 막연하고 무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온전한 관계를 원하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인적 체험이었다. 포성이 터지고 한강 다리가 무너지는 난리 속에 우리 식구도 피난길에 올라 충청북도 어느 산골로 들어갔다. 빈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여섯 식구가 얼마간을 살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나는 상그릴라를 만났다. 포성은 더 이상 안 들리고 평화로운 기운이 그득한 고요한 산골짜 안에서 모처럼 어머니는 매일 우리와 함께하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 개천에서 세수를 하고, 물을 길어다 밥을 하고, 낮에는 들에서 나물을 캐고, 밤에는 반짝이는 검은 하늘에서 쏟아 질 것같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전 처음으로 나의 고립된 속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을 체험했다. 땅과 하늘, 산과 들, 그 기운이 나의 기운이고 나를 움직이는 체험이었었는데,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연결시켜 준 것이 엄마의 존재였다. (엄마가 완전히 내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미국 가고 안 계신 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이 길은 나의 금광을 발견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를 자녀들을 데하는 데에도 적용해 왔다. 자녀들과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관계를 이루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며 충실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기여하는 동지적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 사용하온 방법은,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의 요인을 내게 미약했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는 내 자신의 내면 작업으로 들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Includes names like 박인수, 김광수, 김동준, etc., and their respective dues in Korean Won.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Includes names like 한영준, 변만식, 정병희, etc., and their respective dues in Korean Won.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Lists donation amounts and options like Scholarship Fund, Charity Fund, etc.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Includes fields for E-mail and 주소 (Address).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a, CA 90630
j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Dr. Lee, Chong Do. Dennis
이종도 (공대 66)
Tel: (626)448-7870 / Fax: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명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인문 75)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 83)
Tel. (213) 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E-mail: iminusa@iminusa.net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usajour.com
213-388-4000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7명)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5)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김신용 (사대 73) 김동훈 (의대 71)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선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
미네소타
김권숙 (공대 61) 남태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u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503-253-8887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j@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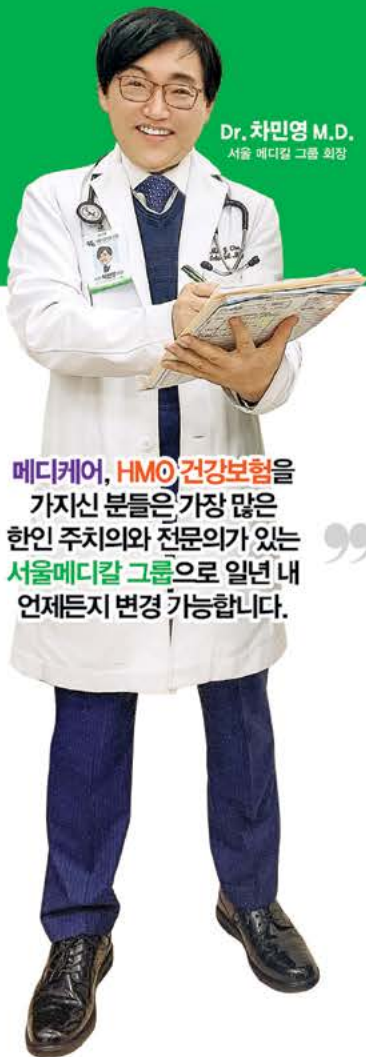
LA 213-383-2525

2만명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왜 다들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가입하시길 원하십니까?

예방 의학도 최고!
“ 치료 의학도 최고! ”
전문의 리퍼도 최고!

시니어분들의 건강 지킴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주치의들입니다.
주치의도 전문의도 크고 탄탄한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275 여명의 주치의 | 2875 여명의 전문의



Dr. 차민영 M.D.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는
서울메디칼 그룹으로 일년 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이선우 M.D.	백상현 M.D.	이영직 M.D.	강수웅 M.D.	백성렬 M.D.	한경모 M.D.	김동훈 M.D.	조지인 M.D.	배호섭 M.D.	
한경모 내과	차민영 내과	조지인 가정주치의	백상현 내과	이영직 내과	강수웅 내과	배호섭 위장내과	로리안 가정주치의	강훈구 가정주치의	정만길 내과
이선우 내과	김영진 내과	손향은 내과							
정희수 내과	이동현 내과	카렌김 내과	김다이아나 내과	윤은주 내과	김일영 내과	김승현 내과	조동혁 내과	송명재 내과	변성래 가정주치의
알버트안 내과	권평일 내과	임대순 내과	신동원 내과						
김민성 내과	이용태 내과	에릭 슬루더버그 가정주치의	홍석은 내과	빅터 공 내과	위안 리우 가정주치의	벨슨 로잘레스 가정주치의	조아라 내과	임영빈 내과	김도영 내과
강수웅 내과	간 김 가정주치의	로버트 하 내과							
폴 장 내과	김홍식 내과	홍훈기 내과	리처드 한 내과	송채원 내과	오문목 가정주치의	김방선 내과	이광혁 내과	안우성 내과	안규동 내과
김진세 내과	박재만 내과	박수영 내과	제이슨 방 내과						
백성렬 내과	변상준 내과	오희용 내과	김재명 내과	석태영 내과	강대욱 내과	박병국 가정주치의	피터 정 가정주치의	이상기 내과	정한규 내과
박미란 가정주치의									
이부웅 내과	조기석 내과	조윤정 내과	장국일 내과	유경수 가정주치의	임덕 내과	이명훈 가정주치의	최청원 내과		

이 외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의 많은 주치의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213.389.0077 • 1.800.611.9862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Referral)**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칼 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

